

체크체크

| 국어 2-1 |

# 정답과 해설

천재 박영목 교과서

갈래 특강	02
국어	03
서술형 특강	32
시험 대비 문제집	36
실전 모의고사	50



## 01 시

예문 ①~⑤ 확인 문제 | p.6~9

1 ② 2 ⑤ 3 ① 4 ③ 5 ①

- 시에 쓰인 말은 사전적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 유년 시절을 '잊목'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유년 시절은 춥고 외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 이 시에서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Clinic 오답 강의

- '먼 훗날, 당신이, 잊었노라' 등을 반복한다.
- '먼 훗날(3) 당신이(3) 찾으시면(4) / 그때에(3) 내 말이(3) 잊었노라(4)'처럼 3·3·4조의 율격이 나타난다.
- '~면 ~노라'의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 '먼 훗날V당신이V찾으시면'처럼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 ①과 ③에는 겉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설의법, ②는 직유법, ④는 은유법, ⑤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 이 시에는 시각적 심상('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 '별 그림자'), 청각적 심상('점동새 소리'), 후각적 심상('밤 짓는 땀새'), 촉각적 심상('밤터처럼 따스한 별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①에는 미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Clinic 오답 강의

②는 시각적 심상, ③은 청각적 심상, ④는 후각적 심상, ⑤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02 소설

예문 ①~④ 확인 문제 | p.10~13

1 ③ 2 ③ 3 ① 4 ②

- 이 글은 작가의 상상력을 토대로 꾸며 낸 허구의 이야기인 소설이다. ③은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느낌, 생각, 깨달음을 일정한 형식에 엮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 이 글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나'와 문기가 갈등하는데, 이는 개인과 개인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③ 역시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의 갈등 즉, 개인과 개인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개인과 자연 사이의 외적 갈등, ②, ④는 개인의 내적 갈등, ⑤는 개인과 사회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 이 소설에서는 '나'의 심리가 행동이나 소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①은 수남이의 행복한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 이 소설은 이야기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와 같이 이야기 밖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 03 수필

예문 ①~② 확인 문제 | p.14~15

1 ④ 2 ②

-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 느낌 등을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수필이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②는 시, ③은 소설, ⑤는 소설이나 희곡의 특징으로 알맞다.

- 수필을 감상할 때에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깨달음을 공감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04 극·시나리오

예문 ①~② 확인 문제 | p.16~17

1 ④ 2 ⑤

- 이 글은 뮤지컬 대본으로, 서술자 없이 인물의 행동과 대사 등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④는 소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이 글은 드라마 대본(시나리오)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과 달리 시간이나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 1 | 문학 작품의 관점

## 01 엄마 걱정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20

1 ⑤ 2 ③ 3 ⑤

- 1 사물과 같은 무생물도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면 시의 화자가 될 수 있다.
- 2 <보기>에서 화자는 '나'로 직접 드러나 있다.
- 3 시에서 화자가 달라지면 시의 주제, 내용,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를 감상할 때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 소단원 체크

p.21

1 ③ 2 찬밥 3 ② 4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 된 '나' 5 ②

- 1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독백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2 화자는 엄마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일하러 나가시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찬밥'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3 화자가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한 것으로 보아,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2연의 '아주 먼 옛날'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과거(유년 시절)를 회상하고 있다.
- 5 '숙제'는 홀로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소재이고, 나머지는 모두 춥고 외로운 '나'의 상황을 보여 주는 차갑고 어두운 느낌의 시어이다.

### 소단원 마무리

p.22

회상, 시구, '나', 유년 시절, 외로움, '빛소리'



### 학습 활동 엿보기

p.23~25

내용 학습 엄마

목표 학습 무섭다, 서늘한, 슬픔, 사랑, 사투리, 딸기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23~25

1 ⑤ 2 ① 3 ② 4 슬픔 5 내 유년의 뒷목 6 ② 7 ③  
8 ③ 9 ⑤ 10 딸기, 사투리를 쓴다. 11 ⑤ 12 ④

- 1 1연의 유년 시절(과거)에서 2연의 어른이 된 현재로 시상이 전개된다.

- 2 '열무 삼십 단'은 엄마의 생계 수단으로 삶의 무게를 보여 주므로 싱글병글한 엄마의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 3 이 시의 화자는 오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후 힘들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 4 ㉠은 엄마를 홀로 기다리며 외로움과 무서움에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은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5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 표현했다.
- 6 화자는 외롭고 무서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 7 이 시의 화자를 '나'의 친구로 설정했을 때 화자는 빈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 친구를 보며 걱정과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 8 이 시의 화자를 '엄마'로 바꾸면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나가 늦게 귀가하는 엄마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③은 이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9 시의 화자가 달라지면 시의 내용, 소재, 주제, 정서, 분위기, 말투(어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10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사 갈 손님을 기다리는 '딸기'이며, 사투리를 사용하여 내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 11 화자를 '딸기'로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작품을 읽는 재미를 준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은 시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기를 화자로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도 거리가 멀다.
- 12 시인은 '딸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딸기가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람을 밝히며,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26

- 01 ② 02 ② 03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04 ①  
05 ② 06 ㉠ 늦은 밤까지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 외로움, 무서움, 슬픔

- 01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이다.
- 02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낀다. 이를 통해 유년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지친 엄마의 힘없는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하여 고된 엄마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04 화자는 유년 시절에 엄마를 홀로 기다리며 외롭고 무서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져 '내 유년의 뒷목'이라 표현한 것이다.

05 〈보기〉는 시의 화자가 '엄마'로 바뀌면서 주제도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06 1연에 화자의 유년 시절의 상황과 그때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시장에 열무를 팔러 간 엄마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혼자 빈방에 덩그러니 남아 무서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㉔에 화자가 상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함.	2점
㉔에 화자의 정서를 두 가지 이상 밝혀씀.	2점
㉔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㉔에 정서를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각 -1점

## 02 동백꽃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27

1 ③ 2 ③ 3 ⑤ 4 3인칭 전지적 시점

- 1 소설에서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이로, 서술 기능을 수행하는 허구적 화자를 말한다.
- 2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3 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주인공인 '나'의 주관적 서술로 사건이 전개된다.
- 4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하며, '문기'의 내면 심리까지 모두 꿰뚫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 소단원 체크

p.28~36

- 1 ① 2 ⑤ 3 ① 4 ④ 5 ② 6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애정)  
 7 ⑤ 8 ④ 9 ③ 10 ⑤ 11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다.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④ 17 ④ 18 ① 19 ① 20 ③  
 21 ② 22 ④ 23 ③ 24 ③ 25 닭싸움 26 ④ 27 ⑤ 28 ②  
 29 ① 30 ⑤ 31 ① 32 ③ 33 누 집 닭인데? 34 ① 35 ③  
 36 농촌 마을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37 ⑤

- 1 (가)~(나)는 구성 단계상 발단에 해당한다. 발단에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 ✚ Clinic 오답 강의

②는 전개, ③은 절정, ④는 위기, ⑤는 결말에 대한 설명이다.

- 2 이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토속적 소재, 사투리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선혈'은 '붉은 피'를 의미하는 말로,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3 '고놈의 계집애가~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모습을 보인다.
- 4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 '나'이다. '나'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관찰만 할 뿐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 5 현재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인 일을 이야기하다가 과거(나흘 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점순이가 감자를 건넨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 7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것이다.
- 8 ㉔은 '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한 후의 점순이의 모습이므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9 (마)를 통해 점순이가 평소 씩씩하고 당돌하고 천연덕스러운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0 어머니는 마름인 점순네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서 '나'가 점순이와 붙어 다니다가 소문이 나면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길까 봐 걱정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점순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 11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화가 난 까닭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모습을 보인다.
- 12 점순이가 감자를 거절당한 양갓음으로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힘으로써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13 점순이는 '나'에게 호의로 건넨 감자를 거절당한 후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나'의 닭을 괴롭히는 것이다.
- 14 '나'는 점순네 집과의 관계를 생각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남의 집에 들어가 싸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 15 '나'와 점순이가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갈등 해결의 계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 16 '배냇병신'이라는 욕설은 점순이가 '나'를 약 올리기 위해 한 말이지, '나'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7 '나'는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점순이에게 화가 나지만 마름인 점순네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 맞서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

을할 수밖에 없어 분하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후련함은 (자)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 18** 점순이가 ‘나’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집요하고 당돌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9**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대신 보여 주는 것으로, 닭싸움으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진다.
- 20**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것은 호감의 표시였다. 이를 ‘나’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①, ②, ④, ⑤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 21** ㉠은 제집 닭을 몰고 와서 ‘나’의 닭과 자꾸 싸움을 붙이는 점순이에게 대처할 요량으로 자기네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피를 낸 것을 의미한다.
- 22** ‘나’는 씬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진다는 속설을 믿고,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을 이기기를 기대하며 고추장을 먹였다.
- 23** ㉢에서 ‘나’는 고추장을 먹인 닭과 점순네 닭을 싸움 붙이며 기대를 하다가 ㉤에서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하는 모습에 신이 난다. 그러나 ㉢에서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에게 패하자 실망한다.
- 24** 점순네 닭이 결국 ‘나’의 닭을 이기자 점순이가 ‘나’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웃는 것은 ‘나’를 약 올리며 관심을 끌려고 한 행동이다.
- 25** 점순이는 닭싸움을 통해 ‘나’에게 앙갚음을 하는 동시에 관심을 끌려 하고, ‘나’는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나 닭싸움에 개입한다.
- 26** ‘나’는 고추장을 좀 더 먹였다면 점순네 닭을 이길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점순네 닭에게 패하자 더 오기가 생겨 힘이 생기도록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것이다.
- 27** ‘나’는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에게 패해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억지로 고추장을 먹는 괴로움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28** [A]에는 고추장을 먹고 축 처진 닭을 보고 아버지 눈에 떨까 봐 감추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느끼는 실망감과 닭의 상태에 대한 당황스러움, 아버지께 들릴까 봐 걱정하고 겁은 내는 모습은 보이나, 억울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29**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씬을 붙여 났으니’를 통해 과거 화상이 끝나고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 30** 이어지는 내용에서 점순이가 ‘나’가 닭을 죽인 것을 용서해 줌으로써 닭싸움이 화해(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닭싸움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 31** ‘동백꽃’은 봄날의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점차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 32** ‘나’는 전에는 점순이가 ‘걱실걱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제집애’라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갈등이 생긴 후에는 ‘눈 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며 알미워하고 있다.
- 33** 점순이가 “누 집 닭인데?”라고 하자 ‘나’는 소작농인 자기 집의 처지를 떠올리고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 34** 점순이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것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다.
- 35** (더)에서는 점순네 닭을 죽인 후환을 두려워하다가 점순이의 말을 듣고 안도하는 모습이 나온다. (러)에서는 점순이와 동백꽃에 과묵혀 아찔하고 황홀한 감정을 느낀다.
- 36** ‘노란 동백꽃’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와 점순이의 풋풋한 사랑을 나타낸다.
- 37** ‘나’와 점순이가 점순이를 찾는 점순이 어머니의 호통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결말이다.

#### 핵심 포인트

p.28~36

- |                    |                    |
|--------------------|--------------------|
| <b>01</b> 닭싸움, 주인공 | <b>02</b> 마름, 감자   |
| <b>03</b> 소극적, 갈등  | <b>04</b> 기대감, 실망감 |
| <b>05</b> 무안, 심화   | <b>06</b> 동백꽃, 웃음  |

#### 교과서 날개 문제

p.28~36

- 1** 자기네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쪼여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2**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 까닭 없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한다. **3** •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점순이의 말에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 **4** •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 호의를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 ‘나’가 감자를 받지 않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5** 점순이는 마름 집 딸인데, ‘나’와 점순이가 붙어 다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농사지를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6** •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서이다. •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점순네 수탉과 싸워 이길 것을 기대하며 고추장을 먹였다. **8** •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이다. •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9** 농사지를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0** • 점순이는 ‘나’가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생각에 기뻐할 것이다. • ‘나’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겠다는 점순이가 고마웠을 것이다. / ‘나’는 갑자기 점순이와 동백꽃 속으로 쓰러져서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 소단원 마무리

p.37

사랑, 역순행적, 해학적, 닭싸움





내용 학습 고추장, 감자

목표 학습 '나', 관심, 생색, 눈치, 점순이, 의도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38~41

- 1 ④ 2 '나'가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함. 3 ④ 4 ② 5 ⑤  
6 ③ 7 ③ 8 ⑤ 9 ④ 10 3인칭 관찰자 시점 11 ⑤ 12 ⑤  
13 ④ 14 ③

-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현재-과거-현재'로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보기>는 '나'가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한 후 점순이가 '나'에게 양갓음을 한 행동들이다.
- '나'가 점순네 수탉을 단매로 때려죽이면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인 글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이다.
-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와 같이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살갑게 구는 이유를 모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나'는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며 자기네 집이 잘사는 것을 생색낸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받지 않았다.
- '나'는 무뚝뚝하고 눈치가 없는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며, 점순이는 적극적이며 당돌하고 조숙한 모습을 보인다.
-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자신의 이야기와 '나'가 관찰한 주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지만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알지는 못한다.
- 서술자인 '나'는 눈치가 없고 순박하여 점순이가 펼치는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하면서 사건,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
- 노란 동백꽃에 함께 파묻히는 것은 두 사람의 화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은 둘의 사랑과 화해가 나타나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 이 작품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점순이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서술된다. 따라서 점순이의 속마음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작품의 '나'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고 행동만 서술된다.
- <보기>의 서술자는 모든 인물의 행동 의도, 심리를 직접적으로

로 서술한다.

## Clinic 오답 강의

-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여 서술할 때 상상력이 더 자극된다.
-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서술할 때보다 오히려 심리가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 있을 때 긴장감이 생길 수 있다.
- '나'가 점순이의 속마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해학적 분위기가 반감될 수 있고, '나'의 순박함도 덜 두드러지게 된다.
- 인물들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속마음까지 서술된다.

- 14 서술자가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달라진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42~43

- 01 ② 02 ② 03 ④ 04 이 글은 순박하고 어리숙해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띄게 한다. 05 ① 06 ④ 07 ① 08 ④  
09 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나'와 점순이 사이에 싹튼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 01 이 글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고,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향토적, 해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③ (가)의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의 부분은 현재이고, (나)의 '니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의 부분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된다.

- 02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감자를 주는 이유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심한 태도로 반응한다.  
03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된 (다)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모두 꿰뚫어 보는 서술자로 바뀌면서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의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고, 이에 따라 '나'가 서술자일 때보다 해학적인 분위기가 덜해졌다.  
04 점순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둔하고 눈치 없는 모습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서술자의 특징을 바르게 서술함.	2점
서술자의 설정 효과를 작품의 분위기 측면에서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동백꽃 속으로 함께 파묻히는 '나'와 점순이의 모습을 통해 사춘기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 내고 있다.  
06 (라)에서 닭의 죽음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07 (가)에서 점순이가 자기 집 수탉을 몰고 와서 '나'의 집 수탉을 싸움을 붙이고, 급기야 모이로 '나'의 집 수탉을 꼬여 내어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가 집요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② '나'가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점순이가 일부러 크게 웃는 것은 '나'를 약 올리기 위한 행동이다.
- ④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인 것은 핑계에 저지른 일이다.
- ⑤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잡고 동백꽃 속으로 파묻힌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다.

**08** 동백꽃 속에서의 화해도 잠시, 점순이 어머니의 호통에 놀라 달아나는 '나'와 점순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9**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한 후 점순이의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 갈등하던 두 사람이 동백꽃 속에 함께 파묻히는 장면은 갈등 해소와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 갈등이 해소(화해)되었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이 들어감.	각 2점
• 사랑의 감정을 보여 준다는 내용이 들어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p.48

확인 문제	1 ①	2 ④	3 ①	4 ②
5 조국	6 ⑤	7 ④	8 ③	

- 1** '나'의 독백 형식으로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림을 드러낸다.
- 2** '나'는 당신이 떠났어도 곧 돌아올 것을 믿기에 원망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친다.
- 3** '당신'은 물만 건너면 화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는 무심한 모습을 보인다.
- 4** 늘 같은 자리에서 행인을 기다리는 나룻배의 모습을 통해 임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5** 독립운동가였던 작가의 삶을 고려할 때, '나'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은 '조국'으로 볼 수 있다.
- 6** 화자는 청각 장애인으로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빛으로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밤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 7** (나)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피하는 일이 비장애인에겐 쉬운 일이지만, 청각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일임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이 청각 장애인에게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8** 보행자가 있을 때 경적을 울리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난폭 운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 대단원 종합 문제

p.49~51

-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06 ②**      **07 ⑤**      **08** 이시의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빚대어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사랑(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다.      **09 ⑤**
- 10 ②**      **11 ③**      **12 ⑤**      **13 ①**      **14** • '나':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한다. • 점순이: 감자를 주며 먼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호의를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양갈음을 한다.

**01** (가)에서는 외로웠던 유년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 유년 시절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이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당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에서 자신의 처지를 '천벌',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하고, (나)에서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빗대어 표현한다.
- ③ 시의 화자는 모두 '나'이다.
- ④ (가)는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는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가)는 '안 오시네'가 반복되어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며 (나)는 1연과 4연을 반복해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한다.

- 02** (나)의 화자는 자신을 무심하게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도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당신'에 대한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 03** (가)는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의 상황과 이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난 시이다. 시의 화자는 외로움, 쓸쓸함, 두려움, 안타까움, 서글픔 등을 느낀다.
  - 04** (가)의 화자가 숙제를 천천히 한 이유는 할 일이 다 끝나면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고 무서울 것 같아서이지 엄마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 아니다.
  - 05** (가)는 홀로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외로움을 떠올리는 어른이 된 '나'가 시의 화자이다. <보기>는 가족들은 모두 바쁘고 늘 홀로 지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나'가 시의 화자이다.
- | 채점 기준 (채점 요소)                                | 배점(총 4점) |
|--|----------|
| 화자의 정서(외로움)와 태도(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가 모두 드러나게 씀. | 4점       |
| 화자의 정서나 태도 가운데 한 가지만 씀.                      | -2점      |
- 06** ㉠에서는 '당신'을 향한 희생적, 헌신적 태도가 드러난다. ㉡도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의 의지를 다짐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구름에 달 가듯이' 길이 가는 나그네의 유유자적한 태도, ③은 자연을 즐기며 사는 태도, ④는 자기 이름을 흙으로 덮어 버리는 자아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다. ⑤는 입을 '금결', '아침 별의 첫결음'에 빗대어 입의 절대성을 찬양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07 ㉔에서는 '당신'을 기다리며 겪는 고난과 역경이 나타난다. '나'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흔들림 없이 '당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숭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

08 이 시에서 화자는 '나'로, '당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자세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행인을 기다리는 나룻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화자가 자신을 빗대고 있는 대상을 밝힌.	1점
이 시의 주제를 포함하여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9 이 글에는 인물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로 '나'와 점순이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0 (나)에서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점순이가 썩근썩근 하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고 서술되어 있어 화난 점순이의 표정을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에서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로 보아 '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책하는 표정은 적절하지 않다.

11 (나) 점순이가 건넌 감자를 '나'가 거절함.(나흘 전) → (다)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함.(사흘 전) → (가) 점순네 닭과 '나'의 집 닭이 닭싸움을 또 함.(오늘 점심을 먹은 후) → (라) '나'가 핫김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임.(오늘) → (마) '나'와 점순이가 화해함.(오늘)

12 (마)에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라는 문은 점순이의 말에 '나'가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면서 무척내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나'는 점순이의 괴롭힘이 감자를 거절한 것 때문이었음을 알지 못한다.

13 <보기>는 [A]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어 쓴 것이다. 따라서 점순이의 시각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점순이의 속마음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14 '나'는 점순이의 이성적 관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이의 의도를 엉뚱하게 판단하는 어수룩한 인물이다. 이에 반해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감자를 거절한 '나'를 괴롭히는 당돌한 면모를 보인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㉔, ㉕, ㉖에 맞맞은 내용을 서술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잠깐!

## 서술형 특강

p.52~53

01 (1) '찬밥, 금 간 창틈, 빗소리, 빈방' 등의 소재는 외롭고 쓸쓸한 정서와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2) 화자는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가운 '윗목'처럼 춥고 외롭게 지낸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기에 슬픔을 느낀다. 2 (1) '나'는 점순이의 반응을 보고 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한다. /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를 '나'가 거절하자 창피하고 화가 났다. (2) ① '나'를 향한 점순이의 애정을 드러낸다. ②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3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자신의 속마음은 들려주지만,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알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해 읽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다. 4 (1) 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① 낭만적,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나'와 점순이의 뜻밖한 사랑을 나타낸다. ③ '나'와 점순이의 화해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01 (1) '찬밥'은 차갑고 추운 느낌을 주고, '금 간 창틈'과 '고요히 빗소리'는 무서움을 느끼게 한다. '빈방'은 외롭고 슬픈 느낌을 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7점)
• 소재 3개를 찾아 제시함. • 정서를 바르게 밝혀 씀. • 시의 분위기를 바르게 밝혀 씀.	각 2점
<조건>의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㉔은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 표현한 시구이다. '나'에게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린 느낌을 주는 시절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 ㉔이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었음을 밝혀 씀. • 슬픔, 안타까움 등의 정서를 밝혀 씀.	각 2점
<조건 2>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1) '나'는 점순이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까지 어린 이유를 눈치채지 못한다. 한편 점순이는 감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으나, '나'에게 거절당해 부끄럽고 화가 났을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6점)
• '나'의 심리와 그 까닭을 바르게 제시함. • 점순이의 심리와 그 까닭을 바르게 제시함.	각 2점
<조건>에 맞게 씀.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점순이는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감자를 건네지만, '나'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감자의 역할 두 가지를 바르게 밝힘.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이 글은 '나'가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의 내면 심리는 잘 드러나지만, 다른 인물들의 심리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



문에 이 작품에서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해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6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밝힘.	2점
시점이 이 글에 주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힘.	3점
<조건>의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1)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의 감정싸움을 대신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가 닭싸움을 보고 화가 나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것을 계기로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 갈등을 심화시킴을 밝힘. •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됨을 밝힘.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노란 동백꽃’은 향토적 소재임과 동시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 갈등을 겪던 ‘나’와 점순이가 함께 동백꽃에 파묻히는 것은 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드러낸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6점)
• 노란 동백꽃이 조성하는 분위기를 바르게 밝힘. • 남녀의 사랑을 드러냄을 밝힘. • 둘 사이의 갈등 해소 및 화해가 이루어짐을 밝힘.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우리말 특독 모아 보기

p.54~55

- 1 단 2 (1) 톳 (2) 삼 (3) 두름 (4) 판 (5) 축 3 ① 4 (1) ㉠ (2) ㉡ (3) ㉢ (4) ㉣**

# 2 | 독서와 발표

## 01 읽기의 생활화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58

- 1 ④ 2 ⑤ 3 고전 4 ⑤**

- 1 읽기를 통해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독자가 직접 경험하기 힘든 일까지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 2 교과 학습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 3 고전은 과거의 문학 작품 중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 4 독서 일지는 새롭게 알게 된 점, 책을 읽고 느낀 점, 궁금한 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소단원 체크

p.59~61

- 1 ④ 2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 ② 4 ②, ④ 5 ③ 6 ⑤ 7 ③ 8 ⑤ 9 ②, ④ 10 ③ 11 책 속에 길이 있다고.**

- 1 글쓴이가 3학년이 되어 산악반에서 도서반으로 옮긴 것은 산악반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다.
- 2 글쓴이는 특별 활동을 새로 정할 때, 활동적인 산악반보다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도서반을 선택했다.
- 3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하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책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했다.
- 4 글쓴이는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이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을 다루는 내용 전개 방식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 5 (마)에서 글쓴이는 한 번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외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 무협지와 달리,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의 뒷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등 자꾸만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 6 ㉠은 고전이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게 되고, 새롭게 읽어서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새롭게 읽힌다는 것이 기존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 7 글쓴이는 책을 읽고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 느낌이 든 것을 보약을 먹는 것에 비유해 표현하였다.
- 8 독자는 고전을 매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가와 교감하고, 작품 속에 제시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 9 중학교 3학년 때 글쓴이의 독서 경험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글쓴이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10 (사)에서 글쓴이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의 읽기 경험으로 인해 현재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에서는 읽기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11 글쓴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의 가치를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명언을 인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핵심 포인트

p.59~61

01 산악반

02 내용, 재미, 문장, 정신

03 간접, 소설가

04 정신문화, 인간

## 교과서 날개 문제

p.59~61

- 1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특별 활동반을 원했기 때문이다.  
 2 고전을 읽고 옛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 소단원 마무리

p.62

도서반, 보약, 문체, 소설가, 인간



## 학습 활동 엮보기

p.63~65

내용 학습 소설 &lt;허생전&gt;

목표 학습 소통, 가치, 카테킨, 책임감, 사회 문제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63~68

- 1 중학교 때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다. 2 ③ 3 ② 4 ③ 5 ① 카테킨 ① 주의 6 ③ 7 ⑤ 8 ② 9 ④ 10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등 독후 활동을 한다.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① 19 a - c - b - e - d 20 ⑤ 21 ②

- 1 중학교 3학년 때의 독서 경험은 글쓴이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해 주었으며, 글쓴이가 소설가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2 박지원의 소설은 지금까지 글쓴이가 읽어 왔던 무협지와 유사하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문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 3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경험이 글쓴이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읽기가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 4 책 속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무조건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삶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본 후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5 (가)는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6 (나)의 글쓴이는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현실을 비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7 (가)는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를 비판한 수필이다. (가), (나) 모두 허구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
- 8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에 구체적으로 답하면서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책을 구입하는 장소는 읽기 습관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9 읽기를 생활화하려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독서 방법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 10 <보기>는 [A]의 방법 가운데서 책을 읽은 후에 감상문을 쓰는 활동에 해당한다.
- 11 수업 내용과 관련된 책 이외에도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책, 진로나 사회 문제와 관련된 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 12 도서관을 방문할 때에는 도서관의 위치, 가는 방법, 이용 시간, 휴관일, 자료 이용 방법, 이용 절차 등을 미리 조사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13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책을 훑어보며 책의 제목, 저자 또는 역은이, 차례, 분량 등을 살펴보고 모둠원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14 제시된 책은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으로, 한국 십진 분류표로 분류할 때 '800'번대이므로 문학에 해당한다.
- 15 독서 일지에는 읽은 책의 전문(全文)이나 줄거리를 요약해 쓰는 것보다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 궁금한 점을 쓰는 것이 좋다.
- 16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쓸 때에는 책의 내용에 근거해 써야 한다.
- 17 궁금한 점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몰랐던 내용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책을 더 찾아 읽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 18 책을 읽고 모둠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화제를 선정해야 한다.
- 19 도서관을 방문할 때에는 도서관 이용 방법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선정한 책을 각자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토대로 모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입장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 20 하나의 이야깃거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모둠에서 선정한 다양한 이야깃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 21 모둠별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으며,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게 된다. 이때 친구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지 따져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5 한문을 번역한 듯한 예스러운 문체가 무협지와 비슷해서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거부감이 없었고, 내용 역시 익숙했다. 06 ④ 07 ②  
08 ④ 09 ③ 10 녹차를 마실 때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정보를 얻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다.

- 01 글쓴이 '나'는 서울로 전학을 와서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 산악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2 (나)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게 했는데, 이는 읽는 사람의 독서 수준에 맞고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책을 고르도록 한 것이다.
- 03 ㉠, ㉡에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책 표지가 깨끗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고전 읽기를 즐겨하지 않고 꺼려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04 무협지는 읽은 후에 주인공의 이름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의 뒷이야기가 궁금해 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 05 글쓴이는 그동안 무협지를 즐겨 읽어 왔는데,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은 문체와 내용이 비슷해서 익숙함을 느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무협지를 읽은 경험이 미친 영향을 서술함.	2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가), (나)에서 글쓴이는 도서관으로 활동하며 일주일에 한 시간씩 도서관에서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경험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의 소설이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7 (나)에서 글쓴이는 고전을 읽으면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수준이 학업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08 글쓴이는 읽기를 통해 인간의 정신문화의 일원이 되는 행복을 맞출 수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④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읽을 때의 가치에 해당하지만, 이 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09 ㉠은 독자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고전의 가치를 나타낸 구절이다. 이러한 고전의 가치를 ㉡의 '보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은 읽는 재미, ㉡는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 ㉢은 글쓴이의 가치관, 정신, 사상 등, ㉣은 작가와 독자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책의 기능을 비유한 표현이다.

- 10 독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 이전에 몰랐던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배경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설명문에서 느낄 수 있는 읽기의 즐거움을 서술함.	2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발표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71

- 1 발표 2 ② 3 ㉠-㉡-㉢-㉣-㉤ 4 ③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를 발표라고 한다.
- 발표할 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표 주제에 따라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한 후에 청중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발표문과 발표 자료를 제작한다. 이후 청중 앞에서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발표한다.
- 발표할 때에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며 발표하는 것이 좋다.

### 소단원 체크

p.72~76

- 1 ④ 2 ① 3 ⑤ 4 ④ 5 ⑤ 6 ③ 7 ① 8 ② 9 ③ 10 ⑤  
11 ㉠ 기증하기 ㉡ 대여받기 12 ⑤ 13 ① 14 ⑤ 15 ③ 16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7 ① 18 ③ 19 ④

- 발표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 (가)는 발표의 '도입' 부분으로, 발표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앞으로 발표할 내용과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다. 발표자의 당부는 '마무리' 부분에 제시된다.
- 발표자는 [화면 2]에서 앞으로 발표할 내용과 순서를 간략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차례를 통해 발표에 활용된 자료의 종류를 알 수는 없다.
- [화면 3]은 지도를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시한 자료이다.
- [화면 3]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일본과 미국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많이 반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문



화재가 미국 등의 서양 국가를 중심으로 반출되었다는 내용은 알맞지 않다.

- 6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을 때에 문화재를 선물하는 것은 합법적인 반출에 해당한다.
- 7 '준언어적 표현'은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등과 같이 언어에 첨가되는 음성적 요소이다. ㉠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핵심 내용이므로 힌주어 말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 8 <보기>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문화재를 환수한 예에 해당한다.
- 9 정부가 주체가 되어 외교 교섭을 통해 문화재를 환수하기도 하지만, 공공 기관이나 민간단체, 개인 등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를 환수하기도 한다.
- 10 발표자는 문화재 환수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는 준언어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 11 ㉢는 기증의 방법으로, ㉣는 대여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환수한 예이다.
- 12 [화면 6]~[화면 9]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문화재 환수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면 10]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환수된 문화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13 그래프 아랫부분에 '출처: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이라고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14 ㉠의 앞뒤에서, 여러 환수 방법으로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환수 문화재 수가 늘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화면 10]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는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한 문화재 환수 방법에 해당한다.
- 16 (마)에서는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활용하는 '현지 활용'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17 '힘찬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목소리의 크기와 강약 등을 조절하여 크고 힘차게 말해야 한다.
- 18 (바)는 발표의 마무리 단계로, 발표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바)를 통해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외국의 입장은 발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19 발표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내용 이해를 도와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다고 발표자의 노력이 덜 든다고 할 수 없다.

## 핵심 포인트

p.72~76

- |            |                  |
|------------|------------------|
| 01 흥미, 순서  | 02 지도            |
| 03 합법      | 04 기증받기, 도표(그래프) |
| 05 전시회, 역사 | 06 관심, 출처        |

## 소단원 마무리

p.77

대응 방안, 핵심 정보, 환수, 현지 활용, 이해

## 학습 활동 엮보기

p.78

내용 학습 유형, 합법적, 관심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78~80

- 1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 여러 나라에 반출되어 있다. 2 ㉣ 3 ㉣  
4 ㉣ 5 ㉣ 6 대응 방안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7 ㉣ 8 ㉣ 9 ㉣ 10 ㉣ 11 ㉣ 12 ㉣

- 1 민수네 모듬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 각국에 반출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2 ㉣와 같이 세계 국가별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큼 반출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시한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 3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해외 반출 유형을 제시하고, 대응 방안으로 문화재 환수와 현재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된 유형을 불법적인 반출과 합법적인 반출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 5 ㉢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
- 6 민수네 모듬은 청중인 친구들이 대응 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환수 방법이나 현지 활용의 예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 7 발표할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데, ㉢는 청소년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다루는 발표 주제와 상반된 입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8 발표의 전개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차례는 '도입' 단계에서 제시해야 한다.
- 9 발표문을 작성할 때에는 청중 앞에서 말할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도 있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메모할 수도 있다.



- 10** 발표할 때에는 청중의 이해 정도와 반응을 확인하여 발표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말할 수 있다.
- 11** [A]에서는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속어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각화하여 정리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발표할 때에는 청중을 고려하여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언어적 표현보다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81~82

- 01** ①      **02** ⑤      **03** ⑤      **04** ①      **05**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다.      **06** ①      **07** ④      **08** ④
- 09** ⑤      **10**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01** 발표자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02** (마)에 제시된 것처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로 환수할 수 있다.
- 03** (마)에서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⑤는 대개 발표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04** (가)에서 발표자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라고 말한 뒤 <몽유도원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안전의 <몽유도원도>의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화면 3] 자료는 문화재청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함.	3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발표자는 (가)에서 대여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례로 든 문화재의 사진을 [화면 8]에 제시하고 있다.
- 07**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가 반출되어 있는 상대측 정부와의 외교 교섭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는 문화재와 관련한 외교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8** (가)에서는 문화재 환수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검지를 들어 올리면서 첫 번째 방법임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나)에서 문화재의 현지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를 위해 지원하기,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연

구를 위해 비용과 인력 지원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10** [화면 8]은 대어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문화재의 사례로 소개한 <겸재 정선 화첩>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청중의 흥미 유발과 내용 이해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자료의 활용 효과를 청중의 측면에서 두 가지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p.88

- 확인 문제 | **1** ②      **2** ②      **3** ③      **4** ②
- 5** ③      **6** ㉠ 바보 ㉡ 아버지      **7** ⑤

- 1** 이 글은 조선 시대의 유명한 독서광이자 다독 시인이었던 백곡 김득신의 읽기 경험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글이다.
- 2** 글쓴이는 김득신이 서당의 일일 훈장이 된 상황을 설정하여 그와 학동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김득신의 읽기 방법과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 3** 김득신은 글을 늦게 깨우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낸 인물이다. 이러한 자신과 유사한 고민을 하는 학동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 4** (나)에서 김득신은 여러 책이 아닌 같은 글을 많이 읽었는데, 같은 책 전체를 반복하여 읽은 것이 아니라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하였다.
- 5** (라)~(마)에서 학동은 자신이 머리가 나빠 글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며 우울해하고 슬퍼한다. (사)에서는 김득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잠시 희망을 갖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하지만 김득신과 하인과의 일화를 들은 후에 (아)에서는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어 글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되찾고 기뻐한다.
- 6** 김득신은 열 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글을 깨우쳐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무시하여 글공부를 시키지 말라고까지 했지만, 김득신의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김득신을 대견스럽다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다.
- 7** 김득신은 자신이 들려준 이야기를 여전히 의심하는 학동에게 하인과의 일화를 들려주며, 재주가 남들보다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 대단원 종합 문제

p.89~91

- 01 ⑤      02 ④      03 ③      04 '맛있는 책'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의 가치를 나타낸 표현이다. '일생의 보약'은 책을 보약에 비유하여 우리의 정신이나 일생에 도움이 되는 책의 가치를 나타낸 표현이다.  
 05 ③      06 ⑤      07 ④      08 (마)는 마무리 단계로, 앞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언급하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을 한다.  
 09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10 ⑤      11 ②      12 ②      13 ③

01 글쓴이는 옛 조상들이 쓴 고전을 읽으면서 지극한 정신문화를 경험하고 그윽한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는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글쓴이가 이것을 직접 체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정신세계가 한층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박지원의 소설을 통해 고민을 해결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마), ②는 (다), ③은 (라), ⑤는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3 (마)에서 독서가 인간의 정신문화를 고양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04 제목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은 글쓴이가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경험을 통해 느낀 책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에 담긴 의미를 서술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다)의 중심 내용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종류가 아닌,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이다.  
 06 (마)에서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⑤는 발표 내용과 맞지 않다. ⑤는 (라)에서 문화재 환수 방법을 설명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발표문은 청중 앞에서 말할 내용을 그대로 자세하게 적을 수도 있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메모할 수도 있다. 반면에 발표 자료는 핵심 내용을 추려서 정리하고 내용에 맞는 사진이나 도표 등을 넣어 만드는 것이 좋다.  
 08 (마)는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청중에게 당부할 말을 언급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마)의 발표 단계를 알맞게 씀.	2점
마무리 단계의 특징을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 자료를 만들 때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함을 씀.	2점
내용의 신뢰성의 측면과 관련지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0 (마)에는 글쓴이가 하인과의 일화를 들려주며 학동에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을 읽은 독자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⑤는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었을 때의 가치에 해당한다.  
 11 (나)의 글쓴이는 고전을 읽고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이라고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즉, 재미가 있으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즐거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12 (라)에서는 2008년과 2016년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환수한 수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할 때 이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막대그래프를 제시하면 수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3 ㉔은 책임감 없이 함부로 개를 기르지 말라는 의미이다. 글쓴이는 단호한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므로 완곡한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잠깐

## 서술형 특강

p.92~93

- 01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지금까지 즐겨 읽어 왔던 무협지의 문체와 내용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3 무협지를 읽으면 주인공 이름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에 대해 몰입하게 되어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등 주인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4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자신의 정신세계가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책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했다.  
 5 ①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일원이 되게 해 준다. ②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 ③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6 (1)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와 같이 언어에 첨가되는 음성적 요소 / ㉠, ㉡ (2) 표정, 태도, 몸짓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되지 않은 언어 외적인 요소 / ㉢, ㉣  
 7 [화면 4]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을 도식으로 나타낸 자료이므로,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을 설명하는 (나) 문단을 발표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8 (다), (라)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발표할 때에는 사례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9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꾸준한 관심을 갖기를 당부한다.

- 01**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은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수준에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게 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고르게 한 의도를 서술함.	2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글쓴이는 지금까지 무협지를 즐겨 읽어 왔는데,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와 내용이 박지원의 소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 ㉡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까닭을 서술함.	2점
<조건 1>에 따라 무협지를 즐겨 읽은 경험을 언급함.	2점
<조건 2>에 제시된 글자 수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3** (다)에서 무협지를 읽은 후에는 주인공의 이름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주인공에 대한 '나'의 반응을 중심으로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의 차이점을 서술함.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보약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책 역시 독자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자신의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약을 먹은 것에 빗대어 표현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책을 ㉢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를 서술함.	3점
(라)에 제시된 고전의 가치와 연관해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글쓴이는 읽기를 통해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와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는 행복을 느꼈으며, 책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읽기의 가치를 두 가지 이상 알맞게 서술함.	각 2점
<조건 2>에 맞게 각각 한 문장으로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준언어적 표현은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와 같이 언어에 첨가되는 음성적 요소를 말하며,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태도, 몸짓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를 말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6점)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정의를 서술함.	각 2점
㉠~㉢을 (1), (2)에 바르게 구분하여 씀.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7** 발표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청중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나) 문단을 제시함.	2점
<조건 1>에 맞게 근거를 제시함.	2점
<조건 2>에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8** (다), (라)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 해당하는 문화재 사진을 발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씀.	2점
(다), (라)의 핵심 내용을 언급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마)에서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들이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청중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서술함.	2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우리말 특독 모아 보기

p.94~95

- 1** 가름곤 **2** ㉠ **3** (1) ㉡ (2) ㉢ (3) ㉣ (4) ㉤ **4** (1) 대여 (2) 반출 (3) 기준 (4) 교섭

- 2** ㉠은 '책치레'의 뜻풀이이다. '책가위'는 '책의 겉장이 상하지 아니하게 종이, 비닐, 형짚 따위로 덧씌우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의미한다.



### 3 | 담화와 의사소통

####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98

1 ⑤ 2 통일성 3 ② 4 ②

- 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전하려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구성된다.
- <보기>는 담화의 구성 요건 중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다.
- 담화의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③은 통일성, ④, ⑤는 응집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
- 담화에서 적절한 지시 표현을 활용하면 발화와 발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달하려는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 담화란?

p.99~103

##### 1 담화의 구성 요건

지시 표현, 접속 표현, 통일성, 응집성

##### 2 담화의 맥락

발화 의도, 장소, 상황 맥락, 임진각, 겸손, 이해

##### 소단원 체크

p.99~103

- 1 ③ 2 ⑤ 3 맥락 4 ④ 5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6 ④ 7 ④ 8 ② 9 ⑤ 10 (1) 의사와 환자 (2) 병원 (3) 환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 ④ 12 ⑤ 13 화자가 주사를 잘 맞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4 ⑤ 15 ⑤ 16 ③ 17 ④

- 누나와 동생은 머릿속 생각을 음성 언어로 나타내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이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중에 화자와 청자는 계속 바뀌며 담화의 내용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 ㉠, ㉡에는 “내일 비가 온대요.”라는 같은 발화가 사용되었지만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 신비의 말은 4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발화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첫 번째 발화에 중심 생각이 나타나 있고, 이어지는 발화들이 중심 생각을 보완하고 있다.

- ㉠과 ㉡의 주제는 같지만, ㉡는 ㉠과 달리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 담화 참여자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 ㉠, ㉡에 쓰인 “어떠세요?”의 표면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담화의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다르게 해석된다.
- ㉠에서 화자인 ‘미용사’는 청자인 ‘손님’에게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묻기 위한 의도로 “어떠세요?”라고 말하였다.
-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묻고 있다.
- ㉡에서 화자는 치료한 부위가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청자는 이러한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탐구 2 담화에서 ‘가’와 ‘나’는 하나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 주사실이라는 공간에서 ‘맞다’가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의 대화 참여자는 추석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을 보내는 우리의 풍습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인 추석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추석에 시골 큰집에 갈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 명절에 임진각에 간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고향이 북한에 있는 실정민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학생의 말에 남학생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 수민이의 아버지는 손님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말을 하였다.



##### 학습 활동 엮보기

p.104~107

##### 내용 학습

상황 맥락

##### 목표 학습

주제, 의도, 사회·문화적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04~107

- 1 ③ 화자, ⑥ 맥락 2 ① 3 ① 4 ⑤ 5 ⑤ 6 ③ 7 ②  
8 ④ 9 ② 10 ⑤ 11 ③ 12 ② 13 줄리엣과 손님이 상대방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② 15 ⑤  
16 상황, 사회·문화적

- 1 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전하려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구성된다.
- 2 ①은 '발화'에 대한 설명이다. '담화'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뜻한다.
- 3 발화들의 내용이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한다.
- 4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의도나 목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이 상황 맥락에 포함된다.

#### ✚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③, ④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다.

- 5 승강기에서 방귀를 뀌 아저씨가 4층에서 내리고, 방귀 냄새 때문에 그 후에 탄 사람들에게 '나'가 방귀를 뀌었다고 오해를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 6 ㉠은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이라는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므로 통일성을 해친다.
- 7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면 단락의 각 문장이 그 단락의 중심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각 단락의 내용은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 ✚ Clinic 오답 강의

③, ④, ⑤는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방법에 해당한다.

- 8 승강기에 아저씨가 탔다는 내용에서 아저씨가 방귀를 뀌었다는 내용으로 사건이 전환되므로 ㉠에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또한 앞 문장에 있는 표현이 반복되므로 ㉡에는 '그것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9 '그렇게'는 앞에 나온 '방귀를 뀌 것은 제가 아니라고'라는 내용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 10 선생님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늦었음을 우회적으로 꾸짖기 위한 의도로 발화한 것이다.
- 11 선생님은 늦게 온 학생을 꾸짖으려는 의도로 시간을 물었는데, 학생은 상황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의미대로 현재 시간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여 엉뚱하게 대답하였다.
- 12 ②는 버스 도착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현재 시간을 묻는 의미이다. 나머지는 모두 청자를 꾸짖으려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3 줄리엣은 상대방의 권유를 예의상 한두 차례 사양한 후에 수락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손님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14 손님은 상대방이 권유할 때 바로 승낙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괜찮아요."라고 말한 것이다. 뒤에 서운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차를 마실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5 줄리엣과 손님은 상대방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줄리엣과 손님에게 상대방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하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 16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담화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108~109

- 01 ㉠ 발화, ㉡ 담화      02 ㉢      03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이 필요하다.      04 ㉢  
05 ㉠      06 ㉡      07 ㉤      08 ㉢      09 • 문장: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 까닭: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이라는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 01 음성 언어로 생각을 나타낸 것을 '발화'라고 하고,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
- 02 '신비'의 말에서 각각의 발화는 의미를 지니지만, 발화의 주제가 모두 달라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렵다. 발화의 주제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의 발화가 가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03 담화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등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문맥에 알맞은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을 사용하면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 뒤의 문장이 앞 문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 내용을 전환하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가), (나)에서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에 따라 같은 표현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연령에 따라 "어떠세요?"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 06 (가) 담화 상황에서 ㉠이 ㉠과 관련 없는 발화로 보일 수 있지만, 명절에는 고향에 가거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우리나라의 풍습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에 대한 대답으로 ㉠과 같이 말한 것이 자연스럽다.
- 07 남학생은 임진각이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이고 추석이 되면 실향민들이 임진각에 모여 합동 제사를 지내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학생의 할아버지가 실향민임을 알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반응한 것이다.

- 08** (나)의 파블로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겸손하게 표현하는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몰라서, 〈보기〉의 줄리엣은 상대의 권유를 예의상 한 번쯤 사양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09** 이 글은 승강기에서 한 아저씨가 방귀를 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4층에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다는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없어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찾고 그 까닭을 제시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소통과 공감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0

#### 1 의미 2 ④ 3 ⑤ 4 적극적 들어 주기

- 1** 듣기와 말하기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 2**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뀌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 3**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4** 수현이는 영미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였다.

### 소단원 체크

p.111~115

- 1 ② 2 ⑤ 3 ①, ⑤ 4** 아빠가 평소 자신에게 표현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② 6 ② 7 ④ 8 ② 9 ⑤ 10 ② 11** 화가 나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 **12 ④ 13 ② 14 ⑤ 15 ③ 16 ① 17**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신뢰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등

- 1** 두 학생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대화할 때에는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두 학생에게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공유해 나가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 3** 이 글은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독자에게 말하는 듯한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4** 평소에 아빠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호는 아빠가 자신

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잘 몰랐다.

- 5** 아빠가 말할 때에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이고, 민호가 말할 때에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가 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았다.
- 6** 민호와 아빠는 대화를 통해 평소의 오해를 바로잡고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 7** 원활한 대화를 위해 화자는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 8**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 9**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10**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 11** 세 번째 장면의 은미의 말에 은미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
- 12** 광수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온전히 은미의 말에 집중하면서 표정이나 몸짓, “저런, 그래서?”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은미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13** 광수는 은미와 시선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치면서 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으로 은미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며 듣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14** 찬우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하여 말하였다. 은미는 찬우와 대화를 통해 친구와 화해할 방법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찬우가 고민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 15** 은미는 찬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 16**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는 모두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 Clinic 오답 강의

②, ⑤는 소극적 들어 주기, ③, ④는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다.

- 17** 공감하며 듣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p.111~115

핵심 포인트

01 상호 작용, 목적

02 몸짓, 재구성

소단원 마무리

p.116

대화, 집중, 요약, 재구성, 친밀감



학습 활동 엮보기

p.117~118

내용 학습 의미

목표 학습 지식수준, 의도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17~120

1 ① 2 교감, 감정 이입 3 소극적 들어 주기 4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 ③ 6 ① 7 ⑤ 8 ① 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②

- 1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 2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이나 비판, 평가를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교감하고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고 눈빛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 4 적극적 들어 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5 예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광희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광희가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6 이모가 조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7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카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라고 이모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
- 8 효진이는 준호의 말을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공감하며 들어 주고 있다. 또 준호는 효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어 효진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하였다.
- 9 <보기>에서 효진이는 앞부분에서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고 있다.
- 10 ㉠은 효진이가 준호의 상황이나 감정을 헤아려서 준호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준호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는 효진이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하였다.

- 11 상대방과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대화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과 반응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12 <보기>에서 현수가 속상한 일을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빈칸에는 현수의 말에 공감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공감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21~122

- 01 ② 02 그래? 나도 한번 봐야겠다. 그나저나 너, 음악 수행 평가 때 부를 노래 연습했어?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② 08 ② 09 ④ 10 조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다.

- 01 두 학생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서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 02 새로 시작한 드라마에 대한 학생 1의 말에 적절하게 호응하고, 이어서 학생 2가 말하고 싶은 음악 수행 평가에 대한 말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5점)

학생 1이 제시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씀.

2점

학생 2가 원하는 화제를 제시함.

2점

<조건>에 따라 대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씀.

-1점

- 03 아빠는 대화를 통해 민호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민호가 아빠와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민호는 평소에 아빠가 표현을 안 해서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이런 생각이 오해임을 알게 되었다.
- 05 아빠와 민호는 대화를 통해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공유하였다.
- 06 은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지 않은 친구와 다툼 이후에 이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일로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는 내용은 이 만화를 통해 알 수 없다.
- 07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 찬우는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은미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⑤는 찬우, ③, ④는 광수의 듣기 태도에 해당한다.

- 08 광수는 “저런, 그래서?”라고 반응하며 은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하는 말하기 방법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듣기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분석, 비판,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9 찬우는 은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서 은미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10 이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적 외상', '심리적 반응' 등과 같이 조카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조카와 의미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이모의 의사소통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함.	3점
2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p.125

확인 문제 | 1 ② 2 ④ 3 ② 4 맞장구를 쳐주는 것

- 1 (다)의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에 열중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한 상태로 계속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말할 때 보다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사), ③은 (가), ④는 (마), ⑤는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맞장구는 말하는 내용을 긍정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말이다. 표정이나 몸짓은 맞장구와 함께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3 기계적 대화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비인간적 대화이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④는 '진심을 바탕에 간 공감의 대화', ③, ⑤는 '대화를 가장한 독백'의 대화 유형에 해당한다.

- 4 아빠는 "아하, 그렇구나! 옳지!"라고 맞장구를 치며 아이의 말에 호응해 주고 있다.

## 대단원 종합 문제

p.126~127

- 01 ④ 02 ④ 03 ① 04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05 ⑤ 06 ② 07 ⑤
- 08 아빠가 표현을 안 해서 민호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속상했구나.

- 01 유나는 '이보다'와 같이 '이'라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앞 문장에서 말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신비와 유나의 말은 모두 발화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유나'의 말에 해당한다.  
③ '신비'의 말에 해당한다.  
⑤ 신비는 '따라서', '그런데'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2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앞에 나온 내용과 중복되므로 지시 표현 '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 Clinic 오답 강의

- ③ '하지만',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하지만'은 앞뒤 문장이 역접 관계일 때, '또한'은 뒤 문장이 첨가되는 내용일 때 쓰는 접속 표현이다.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일 때 쓰는 접속 표현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등이 있다.

- 03 ㉠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역접 관계로 연결되므로 ㉠에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하고, ㉡에는 앞에 있는 '방귀를 뀌 것은 제가 아니라고'라는 표현을 지시하는 '그렇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4 이 글은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주제와 관련이 없는 장난감 매장에 관한 문장은 삭제해야 글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통일성을 해친다는 내용이 드러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임진각'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 것이다.

- 06 두 학생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여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07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빠가 말할 때에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이고, 민호가 말할 때에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로 대화의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

- 08 ㉠에는 아빠가 표현을 안 해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했다는 민호의 감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에는 민호의 감정을 헤아려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아빠의 말을 씀.	3점
대화 맥락에 적절한 아빠의 말투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1** (가): 미용사 / 머리를 손질하러 온 손님 /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묻는 의미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손님에게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묻고 있는 상황 (나): 의사 / 치료받으러 온 환자 / 환자의 상태가 괜찮는지 확인하는 의미 /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상황

**02** (나), (나)는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03**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기부를 시작하자. / 기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자.

**04** 자연스럽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명절 풍습,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임진각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05** (1) 아빠와 민호는 대화를 통해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함(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2)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06** ① '광수'와 '찬우'는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다. ② 은미의 처지에서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공감을 표현하였다.

**01** (가)는 미용실에서, (나)는 병원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담화이다. (가)와 (나)에는 동일한 발화가 사용되었지만, 화자, 청자, 전달하려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6점)
'화자', '청자'를 각각 알맞게 씀.	각 0.5점
'내용', '맥락'을 각각 알맞게 분석하여 씀.	각 1점

**02**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은 같다. 하지만 (가)와 달리 (나)는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독자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더 쉬워진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6점)
(나)를 고름.	2점
응집성과 관련지어 까닭을 구체적으로 씀.	3점
<조건 2>의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이 글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부의 방법을 예로 들어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끝부분에 독자에게 기부 활동을 권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조건 1>을 충족하여 마지막 문장을 씀.	3점
<조건 2>에 따라 청유문으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이 담화에서 학생들은 추석 풍습과 임진각과 관련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등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를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5점)
담화가 자연스럽다고 평가함.	1점
<조건>에 맞게 까닭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1)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란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화에서 아빠와 민호는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조건 1>에 맞게 아빠와 민호가 공유한 의미를 씀.	3점
<조건 2>의 문장 형태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아빠와 민호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5점)
듣기·말하기의 긍정적 효과를 의미 전달 측면, 인간관계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씀.	각 2점
<조건 2>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6**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 찬우는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으로 은미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면서 대화하였다. 즉, 광수와 찬우는 고민하고 있는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은미의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5점)
<조건 1>에 맞게 광수와 찬우의 공감하며 듣는 태도의 공통점을 두 가지를 씀.	각 2점
<조건 2>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우리말 **특독** 모아 보기

p.130~131

**1** (1) 답소 (2) 무응답 (3) 재담 **2** ③ **3** (1) 한 유명인이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2) 윤아는 이번 시험에서 백점을 맞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4** (1) 일어나려고 (2) 고치려고 (3) 잡으려고 (4) 쏟아지려고 **5** ⑤

**2** '담화'에서 '담(談)'은 '말씀, 이야기'라는 뜻의 한자이다. 그러나 '분담(分擔)'은 '나누어 맡음.'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담(擔)'은 '메다, 맡다'라는 뜻의 한자이다.

**5** ① '출발하려고', ② '제출할게', ③ '하려고', ④ '지으려고'가 알맞은 표현이다.



## 4 |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 01 먼 후일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

1 ④ 2 윤율 3 ⑤ 4 ⑤

- ④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 신뢰성 등을 중시하는 기사문의 특징이다. 이와 달리 문학 작품에서는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참신한 발상으로 표현하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 윤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과 리듬을 가리키는 말이다.
- 윤율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데, 감각적 심상의 사용은 시의 윤율을 형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멀다.
- 반어는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②, ④ 반어를 사용하면 의미나 의도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그 의미나 화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 ③ 반복법에 대한 설명이다.

#### 소단원 체크

p.135

1 ④ 2 ②, ⑤ 3 잊었노라 4 ③

- 이 시의 화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느껴지는 주된 정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다.
- 이 시에서 의성어나 7·5자 글자 수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 ③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 잊었노라'와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윤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면 ~노라'와 같이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윤율을 형성하고 있다.

- 이 시에서 '잊었노라'라는 시어는 임을 먼 훗날에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각 연에서 반복되어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잊었노라'는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반어를 써서 나타낸 표현이다. 따라서 4연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소단원 마무리

p.136

반어, 이별, 3음보, 정서, '잊었노라'

#### 학습 활동 엮보기

p.137~138

내용 학습 이별한 / 헤어진, 사랑

목표 학습 잊을 수 없다, 세, 시어, 리듬감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37~138

1 ⑤ 2 ③ 3 ④ 4 (1) 반어 (2) '당신'을 잊을 수 없다. 5 ①  
6 ② 7 ⑤ 8 나만 쳐다 봐.

- 이 시의 화자는 지난날의 사건을 떠올리거나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 이 시에서 화자는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으므로 애상적 어조가 가장 잘 어울린다.
- '먼 훗날'은 미래의 불확실한 어느 날을 의미하고, '-(으)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먼 훗날에 당신이 화자를 찾아 온다는 것은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일 뿐, '당신'이 약속한 내용은 아니다.
- <보기>는 반어의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잊었노라'라는 말은 반어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 윤율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할 때 형성된다. 각 연이 2행으로 구성된 것은 윤율 형성과 관련이 없다.
- 이 시에서는 같은 시어나 문장 구조의 반복, 3음보의 반복 등을 통해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이 시의 분위기는 슬프고 안타깝다.
- [A]에서는 '반하-', '-지 마', '바나나', '좋아' 등의 말을 반복하여 윤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나한테 반하지 마', '내 곁에 오지 마' 등의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
- [A]의 화자는 '너'에게 설렘을 느끼고 '너'를 좋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제발 '나'만 보길 바란다는 마음의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139

-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반어를 쓰지 않고 표현하여 화자의 속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화자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 강조의 효과가 떨어진다.



- 01 이 시의 화자는 먼 훗날에 '당신'이 '나'를 찾다면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미래에 임이 자신을 찾는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이 시에서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뒤에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③ '당신'을 탓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당신'이 먼 훗날이라도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  
 ⑤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슬퍼하고 있다.

- 03 이 시는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어 각 행을 세 마디로 자연스럽게 끊어 읽을 수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② 그때에 ∨ 내 말이 ∨ '잊었노라'  
 ③ 무척 ∨ 그리다가 ∨ '잊었노라'  
 ⑤ 먼 훗날 ∨ 그때에 ∨ '잊었노라'

- 04 이 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시로, 떠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5 ①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②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화자의 외로운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반어가 쓰이지 않았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임이 가신다면 몹시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그대'를 향한 소중한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 '누워서 편히 지냈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⑤ 규칙을 잘 지키는 '너'를 '바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너'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06 4연의 '잊었노라'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속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보기>에서와 같이 반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 화자의 속마음이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강조의 효과는 덜하게 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반어를 썼을 때의 효과와 관련지어 4연과 <보기>의 차이를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1 독은 아름답다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0

- 1 역설 2 ③ 3 ③ 4 ①

- 1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역설이라고 한다.

- 2 ③은 겉보기에 모순되는 표현이 아니다. 나머지는 꾸며 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서로 모순된다.
- 3 역설적 표현은 모순되는 표현의 이면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의미는 간접적으로 전달되며, 독자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4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모순된 표현이 쓰였으므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 소단원 체크

p.141

- 1 ⑤ 2 ③ 3 ① 4 자식

- 1 이 시의 화자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인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복어알', '친구'가 지닌 특성에서 새롭게 발견한 긍정적인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 2 화자는 밤송이의 가시가 밤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송이가 날카로운 가시로 밤톨을 너그럽게 감싸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 3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①에는 이러한 모순된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4 4연에서 '친구'는 자식을 낳고 술을 끊었다. '친구'는 태어난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술을 끊은 것이다.

### 소단원 마무리

p.142

구린내, 역설적, 친구, 사랑, 자식을 위한 사랑(마음)

### 학습 활동 엮보기

p.144

목표 학습 밤톨, 자식, 모순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43~145

- 1 ② 2 ⑤ 3 ⑤ 4 가시가 날카롭게 찌르면 아프고 따가운데 이것을 너그럽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5 ② 6 ② 7 ①, ⑤ 8 ③ 9 ③ 10 작지만 큰 막내의 선물 11 ③ 12 ④

- 1 이 시의 화자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에서 향기로움을, 밤송이의 가시에서는 너그러움을, 복어알의 독에서는 사랑을, 친구의 독한 마음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모순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2 화자는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것을 보고 독하다고 말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친구가 술을 자주 마셨으며, 그런 친구가 술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구린내'는 '고약한 냄새'라는 뜻이고 '향기롭다'는 '좋은 냄새가 있다.'라는 뜻이므로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 4 날카롭게 찌르는 밤송이의 가시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뜻의 '너그럽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 모순을 이룬다.
- 5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새나 곤충들도 은행나무 열매를 피하게 된다. 이처럼 구린내가 은행나무 열매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기롭다고(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6 복어의 독은 다른 동물이 복어알을 먹지 못하게 하여 복어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7 시인은 독자들에게 모순된 표현 속에 숨은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주제를 강조하고자 역설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 Clinic 오답 강의

- ②는 반복, ③은 감각적 심상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④ 역설을 쓰면 오히려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8 경험이 담긴 시를 쓸 때에는 특별하고 신기하게 꾸며 낸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거나 가치 있었던 일을 글감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 9 손이 차갑고도 따뜻하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자식을 위해 우산을 들고 기다리느라 차가워진 엄마의 손에서 자식을 아끼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 10 화자는 막내가 준 '딱지'가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형에게 미안해하는 동생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선물이란 의미를 '작지만 큰 동생의 선물'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 11 시 〈동생의 선물〉에서는 '후대 전화', '막내'와 같은 시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소리 내어 읽을 때 각 행을 자연스럽게 두 마디씩 끊어 읽게 된다.

- 12 후대 전화를 고장 낸 동생에게 형이 '예쁜 것만 골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생을 예뻐하는 말이 아니라 동생을 혼내려는 의도로 한 말이므로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인 반어이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146

01 ③ 02 ③ 03 ③ 04 ① 05 ⑤

06 자식을 위한 마음에 독하게 술을 끊은 것이니까 독한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01 이 시에서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한 운율(음수율)은 느껴지지 않는다.

02 이 시에는 각 연마다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은 설의법, ②는 도치법, ④는 반어법, ⑤는 은유법에 해당한다.

03 화자는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구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피하는 모습이 마치 은행나무가 사람들에게 은행나무 열매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느껴 ㉠과 같이 표현하였다.

04 ㉠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인 역설이 사용되었다. ①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를 뜻하는 아우성이 소리가 없다는 것은 역설이다.

#### Clinic 오답 강의

- ② 은유법, ③ 직유법, ④ 의인법, ⑤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05 ㉠과 달리 〈보기〉에서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에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들은 모순되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진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②, ④ 역설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역설의 효과 또한 사라지게 된다.  
③ 〈보기〉의 내용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데 반해, 〈보기〉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딱딱한 느낌이 든다.

06 이 시에서 '친구'는 태어난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 술을 끊었다. 술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화자는 친구의 마음이 독하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친구의 독한 마음은 소중한 자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 (총3점)
〈조건〉에 맞게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다운 이유를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양반전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7

1 ③ 2 ⑤ 3 ④

- 1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을 풍자라고 한다.
- 2 풍자는 대상을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엄숙함보다는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3 풍자가 쓰인 소설을 감상할 때에는 풍자의 대상과 그 대상을 풍자한 표현을 찾아 작가가 그 대상의 어떤 모습을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소단원 체크

p.148~152

- 1 ⑤ 2 ① 3 ② 4 ③ 5 ④ 6 ③ 7 ④ 8 양반 신분을 팔아서 평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9 ② 10 ⑤ 11 부자는, 세웠다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⑤ 18 ⑤ 19 ② 20 ⑤ 21 ② 22 ②

- 1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군에서 곡식을 빌려다가 먹었는데, 일천 섬이나 되는 환자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다.
- 2 ㉠에서 양반은 환자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위기에 놓였으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울기만 한다. 따라서 ‘손을 묶어 놓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을 뜻하는 속수 무책(束手無策)과 어울린다.

#### Clinic 오답 강의

- ②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 대가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③ 주마간산(走馬看山):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 ④ 좌정관천(坐井觀天):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見聞)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
- ⑤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 (가)에서 아내는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 쫓쫓, 양반! 양반은 한 푼어 치도 안 되는구려!”라고 말하며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 4 (나)에서 부자는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귀한 대접을 받지만 자신은 부자라도 늘 비천한 대우를 받는 등 양반들로부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음을 한탄하고 있다.
- 5 부자의 말을 통해,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존귀한 대접을 받았고 부자는 평민이므로 비천한 대접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부자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인물로, 조선 후기의 신흥 부유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7 (다)에서 양반은 평민 신분에 맞게 옷차림을 하고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 칭하면서 군수에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

- 8 양반은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으므로 이제 평민이 되었다. 따라서 ㉠과 같이 평민 신분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 9 이 글은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사건을 통해 당대 양반 사회의 문제점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 10 (다)~(라)에서는 옷차림, 말과 행동, 호칭, 앉거나 서는 위치 등이 신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서 외에도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1 “부자는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호장과 이방의 아랫자리에 세웠다.”라는 문장을 통해 양반이 부자보다 낮은 위치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반과 부자의 신분이 바뀌었음이 드러난다.
- 12 이 글에서 군수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를 분명히 해 두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신분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 13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 14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 양반이 자식을 가르칠 때 해야 할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소리를 길게 뿜아 노비를 부른다.
- ② 생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
- ③ 등잔불을 켜고 앉아 《동래박의》를 졸출 외워야 한다.
- ④ 털모자를 옷소매로 뒤어 먼지를 털어 윤이 나게 해야 한다.

- 15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16 ⑤는 양반 신분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 17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산 것은 양반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의 의무만 있을 뿐 특권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18 (마)를 통해 당시의 양반들이 권력을 세습하고, 과거 급제로 얻은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갖 특권을 누리고, 백성들을 괴롭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반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아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다.
- 19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 20 (바)에서 부자는 두 번째 매매 증서에 적힌 양반의 횡포와 부패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양반으로 사는 것이 도둑놈과 같이 부도덕하다고 느껴져서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
- 21 (바)에서 부자는 양반의 삶이 기대한 것과 크게 달라 허망한(어이없고 허무한) 심정을 느낀다.



- 22** 작가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으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핵심 포인트

p.148~152

## 핵심 포인트

- |                      |                |
|----------------------|----------------|
| <b>01</b> 양반 계층, 무능함 | <b>02</b> 경제력  |
| <b>03</b> 소인, 군수     | <b>04</b> 허례허식 |
| <b>05</b> 특권, 풍자     | <b>06</b> 도둑놈  |

## 교과서 날개 문제

p.148~152

- 1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하여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다.
- 2 양반인 남편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 3 • 환자를 대신 갚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다.  
•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 4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양반의 의무만 나열된 증서였기 때문이다. /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5 양반이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는 부정적인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 소단원 마무리

p.153

양반 신분의 매매, 부자, 증서, 양반, 의무, 부도덕

## 학습 활동 엿보기

p.154~156

내용 학습 환자

목표 학습 허례허식, 횡포, 비판적, 우스꽝스럽게, 시민 의식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54~157

- 1** ⑤ **2** ④ **3** ⑤ **4** ⑤ **5**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6** ① **7** ② **8** ⑤ **9** ④, ⑤ **10** ④ **11** ① **12** 쓰레기  
**13** ③ **14** ⑤ **15** ③ **16**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의 모습  
**17** ③

- 1 ⑤는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 해당한다.
- 2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고쳐 줄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나서야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
- 3 ㉠과 ㉡을 통해 양반이 경제 활동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무능함을 알 수 있다.
- 4 ㉢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열거하고 있다. 양반이 되면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므로 양반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⑤에 가깝다.

- 5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의 횡포와 부도덕성을 알게 된 부자는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라고 말하며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 이러한 부자의 말에서 부패한 양반 계층에 대한 작가의 풍자가 절정에 달한다.
- 6 이 글에서 작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으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① 두 번째 매매 증서를 보면 글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 7 ②는 어질고 학식이 높은 양반이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양반을 풍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8 풍자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조롱함으로써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 9 이 시에서는 고유어 대신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조강’, ‘샤워’는 외래어, ‘냉수’는 한자어이다.
- 10 ㉢는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모습을 풍자한 시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외래어나 한자어를 사용하는 대신 우리말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 11 ㉣에서는 불꽃이 폭발하고 떨어지는 잔해를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시민 의식이 사라진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2 ㉣에서는 불꽃이 폭발하고 떨어지는 잔해를 쓰레기로 표현함으로써 불꽃 축제가 끝나고 주변이 쓰레기로 더럽혀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13 ㉣는 시민 의식이 사라진 모습을 불꽃 축제가 끝나고 쓰레기만 남은 상황을 나타낸 그림과 시민 의식이 사라진 모습을 비꼬아 표현한 문구를 통해 ‘시민 의식의 부재(不在)’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 14 풍자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야 한다.
- 15 [A]는 바다 동물인 바다거북과 상어를 의인화하여 해양 오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16 [A]는 바다 동물과 기자의 면담 상황을 설정하여 바다를 오염시켜 바다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7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비꼬아서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③은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담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풍자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소단원 종합 문제

p.158~189

-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06 ① 07 ④ 08 ④ 09 ⑤
- 10 (라)에서는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다.

- 01 (가)의 내용을 보면, 양반이 빌린 곡식을 갚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 대책 없이 울고만 있어서 아내로부터 질책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2 이 글에서 부자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인물이므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에서 양반은 경제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②는 부자, ③은 군수, ⑤는 양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3 부자는 환자를 갚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양반을 안타깝게 여겨서 양반 대신 환자를 갚아 준 것이 아니라, 신분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에서 양반 신분을 사려는 것이다.

- 04 군수가 양반을 '귀하'라고 칭한 것은 양반이 부자에게 신분을 팔고 평민이 되었음을 모르고 한 말이다.

- 05 (가)에서는 관아에서 빌린 환자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양반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양반의 무능한 모습이 드러나게 서술함.	3점
<조간>의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이 글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연암 박지원이 쓴 고전 소설이다.

- 07 이 글에서 양반과 부자는 돈으로 신분을 매매하고 있으며, 군수는 매매 증서를 작성해 준다. 이를 통해 당시에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8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양반의 실상을 깨닫고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

- 09 (가)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에 대한 내용이고, (다)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내용이다. ⑤ '모든 일은 양반 마음대로'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무슨 일든 자기에게 막대한 이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 10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나서 부자는 양반의 삶에 '도둑놈'에 비유하며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 따라서 (라)에서는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라는 부자의 말을 통해 평민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라)에서 풍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2점
<조간>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3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 쓰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0

- 1 ③ 2 (1) 속담 (2) 관용구 3 ⑤

- 1 속담이나 관용구, 명언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이 될 수 있다.

- 2 (1), (2)는 관용 표현의 종류인 속담과 관용구에 대한 설명이다.

- 3 ㉠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은 속담을 변형하여 활용한 표현으로, 모두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소단원 체크

p.161~162

- 1 ④ 2 ④ 3 ⑤ 4 ⑤ 5 ⑤ 6 ③ 7 ⑤ 8 ④

- 1 이 글은 정해진 대상에게 안부나 용건 등을 적어 보내는 편지글이다.

- 2 (가)에서 글쓴이는 슬기가 전학 가고 난 뒤, 슬기와 함께 자주 들렀던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혼자자 된 것 같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 3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는 '좋아하는 곳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속담이다.

- 4 '비행기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라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 5 (나)의 세 번째 문단과 (다)에 슬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친구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6 글쓴이는 전학 간 슬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번 여름 방학에 슬기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다. (라)에서 글쓴이는 슬기와 학교 축제 때 공연을 할 수 없어 슬프다고 하였을 뿐, 슬기를 학교 축제 공연에 초대할 것은 아니다.
- 7 ㉠은 세비네의 말로, ‘멀리 떨어져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 보다는 잠깐이라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좋다.’라는 의미의 명언이다.
- 8 이 글에 대상을 간접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인 풍자는 쓰이지 않았다. ①은 (가)에, ②는 (라)에, ③은 (나)에, ⑤는 (가), (나)에 쓰였다.

## 핵심 포인트

p.161~162

## 핵심 포인트

01 속담, ‘참외’

02 흥 부자, 칭찬

03 명언, 슬기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음

## 교과서 날개 문제

p.162

- 1 아무리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다 해도 직접 만나 짧은 시간 이야기하는 것 만큼의 즐거움은 없다는 의미이다.

## 소단원 마무리

p.163

편지글, 그리움, 관용구, 외로움, 김빠진

## 학습 활동 엮보기

p.164~165

내용 학습 도와주는

목표 학습 좋아하는, 참신, 간결, 새 발의 피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64~167

- 1 ③ 2 ④ 3 ① 4 ⑤ 5 ④ 6 ③ 7 ③ 8 ③ 9 ③  
10 ① 11 ⑤ 12 ⑤

- 1 이 글은 전학 간 친구 슬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 이번 여름 방학에 슬기네 집에 놀러 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이다.
- 2 반 대항 축구 경기에서 큰 목소리로 친구들을 응원하고, 다리를 다친 글쓴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슬기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힘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친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가)와 (나)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가)에 비해 (나)는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김이 빠져 맛이 없는 탄산음료에 빗대어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4 ㉠에는 ‘비행기 태우다’라는 관용구가 쓰였다.
- 5 ④는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구이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②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  
③ 무섭거나 놀라서 날카롭게 신경이 긴장되다.  
⑤ 매우 귀엽다.

- 6 ‘발 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이다.
- 7 ‘새 발의 피’는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오는 피.’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나 극히 적은 분량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Clinic 오답 강의

- ④ ‘바닷속의 좁쌀알 같다’ 역시 그 존재가 대비가 안 될 만큼 보잘것없거나 매우 작고 하찮은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8 ③은 ㉠을 거의 그대로 쓴 것일 뿐, 개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 9 ‘입을 모으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③과 같은 뜻을 가진 관용구는 ‘입만 살다’이다.
- 10 ‘빛 좋은 개살구’는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따라서 ㉠은 모양이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내용에 어울리는 속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를 활용하여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1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해를 입은 만큼 양갓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⑤의 경우에는 ‘앞이 가리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경험이 담긴 글을 쓸 때 속담이나 관용구 등을 활용하여 경험을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상의 표현을 활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글의 내용이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속담이나 관용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01 ②      02 ②      03 ⑤      04 슬기가 없어서 느끼는 외로운 심정을 '참 외롭다'의 앞 글자를 따서 '참외'가 된 것 같다고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05 ⑤      06 ②      07 ⑤      08 직접 만나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09 ③      10 ①, ④  
11 ②

- 01 이 글은 정해진 대상에게 안부나 용건 등을 적어 보내는 편지글이다. ②는 기행문의 특징에 해당한다.
- 02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전학 간 슬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번 여름 방학에 슬기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03 ①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속담이다. 속담은 사람들의 오랜 생활이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간결하게 나타낸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명언, ②는 과장법, ③은 비유법, ④는 관용구에 대한 설명이다.

- 04 글쓴이는 '참 외롭다'의 앞 글자를 따서 '참외'가 된 것 같다고 참신하게 표현하여 슬기가 전학 간 뒤의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표현상의 특징을 맞게 서술함.	2점
글쓴이의 심정을 포함하여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이 글에는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와 같은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②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 '비행기를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따라서 ㉔은 슬기가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 07 ㉔와 ㉕는 속담이나 관용구가 아니라 전달하고자 한 바를 참신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 08 ㉔은 프랑스의 서간문 작가인 세비네가 한 말로, 직접 대면하여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㉔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함.	3점
25자 이내로 쓰지 않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이 글은 유주의 편지에 대한 슬기의 답장으로, 주로 슬기의 편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를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 10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유주가 친구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11 '발을 구르다'는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를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문맥상 유주가 슬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다는 내용이므로, '발 벗고 나서다', '소매를 걷다'라는 관용구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더 읽어 보기

- 확인 문제 | 1 ③      2 ②      3 ③      4 ③  
5 ⑤      6 ⑤      7 ④

- 1 속담은 많은 사람들을 거치며 같고 다듬어 만들어진 말이다.
- 2 속담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딱딱한 느낌을 줄이고 표현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을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㉔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속담을 활용한 표현인데, 이 속담의 의미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만 바란다는 뜻이다.
- 4 ㉔는 김 국장이 환경 전문가로 일한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지, 문맥상 이 속담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속담을 생략해도 글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강조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 5 ㉕는 꼭 알맞은 것이 없을 때 아쉬운 대로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이르는 속담이다. 이와 달리 ㉔는 ㉕의 단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서 더 알맞은 것으로 대신하였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 6 이 글은 속담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표현이 풍부해지고, 기술이 간결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7 신문이나 뉴스 기사의 표제는 제시할 수 있는 글자의 수에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속담에서 '백지장'을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말인 '사이버 보안'으로 교체하여 '사이버 보안도 맞들면 낫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 대단원 종합 문제

p.174~178

- 01 ①      02 ③      03 ⑤      04 ①      05 ⑤  
 06 ⑤      07 ④      08 ⑤      09 ③      10 ⑤  
 11 ①      12 ③      13 ③      14 (가): 지나치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음. (다):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함.      15 ②      16 ③      17 ④  
 18 ①      19 ②      20 ①      21 ④, ⑤  
 22 •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의미: 다른 산업 분야를 통해 수출 부진을 개선할 수 있음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 01 (가)에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을 반대되는 말인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어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나)에서는 모순되는 표현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02 (가)는 3음보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과 같이 끊어 읽는 것이 적절하다.
- 03 4연에서 화자는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라는 표현은 미래에 당신을 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 04 (나)는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복어알, 친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시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 05 ‘친구’는 자식을 낳고 술을 끊었는데 그 이유는 태어난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이처럼 술을 끊은 친구의 독한 마음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 06 이 글은 양반 신분 매매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 07 양반 신분이 매매되는 것으로 보아 신분 제도가 동요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지만 신분 제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다. (나)에서 양반은 존귀하고 평민은 비천하다고 한 부자의 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08 (나)에서 부자는,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자신은 돈이 많아도 수모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말하며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가지겠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 준 것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9 (가)에서 양반은 환자를 갚을 방법을 찾지 않고 울고만 있다. 작가는 아내의 말을 통해 이처럼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다.

- 10 양반이 ㉠처럼 행동한 것은 자신이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서 이제 자신은 평민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1 (다)에서 흥패를 돈 자루에 비유하고,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살만 찌는 양반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다)에 양반들이 문과에 급제한 후 온갖 재물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13 ㉠: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달리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만 나열되어 있어 실망하고 자기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고쳐 줄 것을 요구한다. ㉡: 부자는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이 평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양반이 도둑놈과 같이 부도덕하다고 느낀다.
- 14 (가)의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지나치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다)의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요소)

## 배점(총4점)

(가), (다)에서 풍자한 양반의 모습을 각각 제시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5 (가), (나)에는 풍자나 반어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주로 속담, 관용구,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 16 같은 내용이지만 ㉠에는 속담을 활용하고 있다. 속담 등의 표현을 활용하지 않고 <보기>와 같이 서술하면 표현이 평범하고 밋밋해져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이 되기 어렵다.
- 17 ㉠에 사용된 관용구인 ‘비행기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인 거 알지?’와 같은 의미이다.
- 18 ‘눈 딱 감다’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다. 또는 남의 허물 따위를 보고도 못 본 체하다.’를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따라서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눈이 빠지게’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9 속담은 공식적인 대화뿐 아니라 (바)와 같은 일상의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 20 ㉠은 ‘너무 순하기만 하면 도리어 무시당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①의 뜻을 가진 속담으로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가 있다.

**21** (바)에서 상필은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 먹고 알 먹고’와 같이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는 상황과 관련 있는 속담 여러 개를 제시하고, ‘떡 감고 설탕 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깃털 뽑아 이 쭈시고’와 같이 앞의 속담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을 덧붙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22** 제시된 기사 표제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을 개선할 방법을 주력 산업 외의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표제에 사용된 속담을 알맞게 씀.	2점
표제가 의미하는 비를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잠깐! 사술형 특강

p.179~180

**01** (1) 화자가 먼 훗날에 ‘당신’과 만나면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잊었노라”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대로(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 3음보의 반복, 같은 시어의 반복,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02** (1) 밤송이의 가시가 밤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그러운 존재인 것이지. (2) 은행나무 열매가 다치지 않게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03** (가)의 양반 아내의 말, (나)의 매매 증서와 부자의 말에 풍자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이를 통해 무능하고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04** •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딱북이를 좋아하는 슬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 ‘흥 부자’라는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여 유쾌하고 재미있는 슬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01** (1) 이 시의 화자는 떠나간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먼 훗날 임을 만난다면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잊었노라”라는 말은 반어를 사용하여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5점)
‘잊었노라’의 의미를 씀.	2점
<조건 1>에 맞게 근거를 씀.	2점
<조건 2>의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이 시에서는 3음보의 반복, 같은 시어의 반복,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5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 씀.	각 1점
운율의 효과를 내용적 측면에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1)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친 밤송이의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 그러나 화자는 밤송이의 가시가 밤톨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날카롭게 찌르는 밤송이의 가시가 밤톨에게는 너그러운 존재임을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역설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적절하게 제시함.	3점
<조건 2>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은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구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밟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구린내가 마치 사람들에게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나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의 의미를 구린내의 역할과 관련지어 서술함.	3점
<조건 2>의 문장 형태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가)의 양반 아내의 말을 통해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나)의 두 번째 매매 증서와 부자의 말을 통해 부패하고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6점)
(가)의 아내의 말, (나)의 매매 증서와 부자의 말에 풍자가 쓰였음을 밝힘.	3점
(가), (나)에서 비판하는 양반의 모습을 서술함.	2점
<조건 2>의 문장 형태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슬기의 평소 모습을 속담과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상 깊게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6점)
슬기의 평소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속담과 참신한 표현을 찾아 씀.	각 1점
표현을 통해 드러난 슬기의 모습을 씀.	각 1점
<조건 2>의 문장 형태에 맞게 씀.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우리말 톡톡 모아 보기

p.181~183

**1** (1) 구린내 (2) 단내 (3) 새물내 (4) 풋내 **2** ㉠ **3** (1) 짐신 (2) 잠방이 (3) 병거지 (4) 저고리 **4** ㉠ 병거지, ㉡ 잠방이 **5** (1) 팔 (2) 땅 (3) 이끼 (4) 우물 **6** (1) 쥐구멍을 찾고 (2) 손이 큰 (3) 등잔 밑이 어둡다 (4) 우물 안 개구리

**2** ㉣에서 ‘풋내’는 풀 냄새가 아니라 ‘경험이 적거나 다 자라지 못한 어린 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 1 | 문학 작품의 관점

## 01 엄마 걱정

### 서술형 특강

p.2

답으로 가는 길 | 1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 2 빈방, 밤  
3 어둡고 무서워 4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1 혼자 집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 2 부정적인 시구를 반복해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3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지친 모습을 나타낸다.
- 4 유년 시절의 기억이 방의 차가운 부분인 '윗목'과 같이 차갑고 서글프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 5 **논술형**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며 느낀 무서움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8점)
혼자서 엄마를 기다린다는 내용을 씀.	5점
'무서움', '외로움' 등의 감정을 포함하여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동백꽃

### 서술형 특강

p.3~4

답으로 가는 길 | 1 순박하고 어수룩하다. / 눈치가 없다. 2 감자  
3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함. 4 자존심이 상했다. / 점순이가 생색을 내는 것이 싫었다. 5 호드기 6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7 누 집 닭인데? 8 동백꽃

- 1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소작농이다.
- 2 점순이가 화가 난 까닭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모습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3 **논술형**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감자를 거절한 '나'에게 양감을 하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점순이가 닭을 괴롭힌 까닭을 두 가지 씀.	각 3점
'나'에 대한 점순이의 감정과 관련지어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4 죽을 지경에 이른 닭을 보고도 태연하게 호드기를 부는 점순이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 5 앞으로는 내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마. / 앞으로는 내가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지 마.
- 6 **논술형** 점순네와 '나'의 집은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인데, '나'가 점순네 닭을 죽여서 집과 땅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나'의 심리로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 등을 제시함.	6점
'마름'과 '소작농'이라는 관계를 밝힘.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 서술형 특강

p.5~6

답으로 가는 길 | 1 '나' 2 나룻배 3 무심함, 무정함 4 희생, 헌신, 정성  
5 청각 장애인 6 길을 걸을 때 벽 가까이 붙어 걷는다. 7 배려심이 깊다. / 이해심이 많다. 8 놀람, 안타까움

- 1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다림의 의지를 강조한다.
- 2 일제 강점기의 우리 조국을 의미한다.
- 3 '당신'을 기다리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 4 '당신'이 꼭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5 **논술형**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과 기다림을 강조할 수 있고, 시의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수미상관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함.	각 3점
'당신'에 대한 '나'의 정서를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6 차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 차를 피하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7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불빛으로 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밤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 8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9 **논술형** 일상생활에서 같은 일을 겪더라도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닌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 같은 사건을 대하는 관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차이를 서술함.	6점
독자가 깨달을 만한 점을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 독서와 발표

## 01 읽기의 생활화

### 서술형 특강

p.7~8

답으로 가는 길 | 1 수필 2 자기 마음에 드는 책 3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4 보약 5 재미있음, 뿌듯함 6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의 독서 경험 7 책 속에 길이 있다.

- 1 도서관에서 박지원의 고전 소설을 골라 읽었다.
- 2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내용 전개 방식 등이 평소 즐겨 읽던 무협지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3 책을 통해 정신세계가 한층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4 **논술형** ①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②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다. ③ 문장이 보석처럼 단단하고 아름답다. ④ 정신세계가 성장하는 느낌을 준다.

채점 요소	배점(총9점)
고전 소설의 특징 세 가지를 각각 서술함.	각 2점
각각 3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씀.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5 고전을 읽고 작가의 생각과 사상을 알게 되었다.

6 고전 읽기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7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8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9 **논술형** 책을 통해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읽기의 가치를 두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함.	각 3점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4점

## 02 발표하기

### 서술형 특강

p.9~10

답으로 가는 길 | 1 도입 2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3 <몽유도원도> 사진 4 [화면 2]의 차례 5 문화재 환수, 문화재 현지 활용 6 도표(그래프, 막대그래프) 7 [화면 10]을 가리키며, 고개 숙여 인사하며 8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전

1 발표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격식을 갖추어 높임말을 사용하였다.

2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3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4 **논술형**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발표할 내용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다. / 청중이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알 수 있어서 발표를 집중해서 듣는 데 도움이 된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차례를 제시했을 때의 효과를 청중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 씀.	각 4점
이어진 한 문장으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5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하기 등이 있다.

6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7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자.

8 **논술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 현황을 나타낸 도표(막대그래프)를 활용함으로써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문

화재를 많이 환수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자료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과 도표(그래프)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씀.	각 4점
[화면 10]의 자료 종류를 밝힘.	1점
<조건 2>의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 서술형 특강

p.11

답으로 가는 길 | 1 훈장과 학동의 대화 2 서른여섯 편 3 머리가 나빠서 글을 늦게 깨우쳤다. 4 대견하게 여겼다. /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다.

5 대기만성(大器晩成)

1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반복해서 읽었다.

2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고 슬퍼하는 학동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이다.

3 훈장의 말을 듣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4 **논술형**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훈장이 학동에게 말하고자 한 말(노력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씀.	6점
(라)에 나타난 훈장의 말을 인용하여 씀.	2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3 | 담화와 의사소통

##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 서술형 특강

p.12~13

답으로 가는 길 | 1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2 발화(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3 • 왼쪽 장면: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 오른쪽 장면: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4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거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다. 5 통일성, 응집성 6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7 상황 맥락 8 지각한 학생을 꾸짖으려고 하였다.

1 발화(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야 한다. / 담화의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담화의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이나 장소,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4** **논술형** 임진각에서 명절 때마다 실향민들이 차례를 지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학생의 할아버지가 실향민임을 짐작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임진각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설명함.	6점
할아버지의 상황을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5**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어서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6** ㉠ 그런데 ㉡ 그런데 ㉢ 그리고 ㉣ 하지만/그리고/그렇지만

**7** ㉠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한 것은 ㉡ 방귀를 뀜 것은 제가 아니라고

**8** **논술형** 학생이 선생님의 발화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엉뚱하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생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상황 맥락과 관련지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씀.	5점
학생의 대답을 상황 맥락에 맞게 고쳐 씀.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소통과 공감

### 서술형 특강

p.14~15

**답으로 가는 길** **1**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2** 아빠가 자신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자신이 민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다. **4** 공감하며 대화하기 **5** 친구와 다툰 일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6** 소극적 들어 주기 **7** 적극적 들어 주기

**1** ㉠ 아니, 못 봤는데 재미있어? ㉡ 아니, 오늘 하려고. 우리 집에서 같이 연습할래?

**2** 화자와 청자가 어떤 내용이나 사건에 대해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4** **논술형**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될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아빠와 민호에게 미칠 영향을 제시함.	6점
‘이해’와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5**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드러내고, 은미가 계속 말할 수 있게 돕는다.

**6** 은미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게 한다.

**7** 은미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거나 은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하고 있다.

**8** **논술형** 처음에는 친구와 다툰 일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찬우와 대화하면서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대화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은미의 마음 상태를 서술함.	각 4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 서술형 특강

p.16

**답으로 가는 길** **1** 이상적인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듣기 방법 **2**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며 진지하게 듣기 위해서이다. **3** 모르는 것,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4** 맞장구 **5** 고개를 끄덕이거나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

**1** 정신 집중하기, 적절한 질문 던지기, 적절하게 맞장구치기, 공유한 내용 확인하기

**2** 상대방의 말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며 겸허한 자세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3**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준다고 생각하여 신이 나서 더욱 성의껏 말하게 된다.

**4** **논술형** 상대방과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 폭넓고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6점)
‘공감대’라는 단어를 사용함.	2점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의 효과를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4 |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 01 먼 후일

### 서술형 특강

p.17

**답으로 가는 길** **1**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 **2** 임과 이별하였다. **3** 오늘도 어제와 아니 잊고

**1** 같은 시어의 반복,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3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소리 내어 읽는 재미가 있고, 화자의 정서가 잘 느껴진다.

**3** 미래의 먼 훗날 ‘당신’이 자신을 찾아온다.

**4** 이별한 후 현재까지도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5** **논술형** 두 시의 화자는 둘 다 자신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면 뜻한 바를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화자의 마음을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반어가 사용되었음을 씀.	5점
반어의 사용 효과 씀.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1 독은 아름답다

### 서술형 특강

p.18

답으로 가는 길 | 1 구린내가 난다. 2 자식 3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

- 1 구린내가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냄새이기 때문이다.
- 2 밤톨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3 독이 복어의 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4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5 **논술형** 이 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의 특성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가치를 역설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에 나타난 개성적인 발상을 씀.	6점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양반전

### 서술형 특강

p.19~20

답으로 가는 길 | 1 고전 소설 2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 먹고 값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한심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4 양반의 신분은 사기 위해서이다. 5 양반 6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7 백성을 네 가지 신분으로 구분하였다. 8 도둑놈

- 1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능하다.
- 2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여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었다.
- 3 평소에 양반들에게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서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 4 **논술형** 정선군의 양반은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일부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씀.	3점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임을 씀.	5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5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규범이나 의무)이 나열되어 있다.
- 6 자신이 기대하던 양반 계층의 삶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 자신의 기대와 달리 양반이 되어도 얻는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 7 양반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8 **논술형** 이 글에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부도덕성을 비판함으로써 양반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풍자임을 밝히고, 풍자에 대해 설명함.	5점
(가), (다)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씀.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3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 쓰기

### 서술형 특강

p.21

답으로 가는 길 | 1 속담을 활용하였다. 2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3 이번 여름 방학에 슬기 집에 놀러 갈 수 있다.

- 1 슬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2 슬기와 유주가 떡볶이 가게를 지나치지 않고 자주 들렀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3 슬기가 없는 허전함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4 **논술형**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추어올려 주다.'라는 뜻의 관용구를 활용하여 ㉠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기를 칭찬하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비행기 태우다'의 의미를 제시함.	5점
관용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유주의 마음을 제시함.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 서술형 특강

p.22

답으로 가는 길 | 1 속담 2 정돈되어 가지런히 된 3 간결하고 압축된 표현이다.

- 1 이미 많은 사람을 거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어져 왔기 때문이다.
- 2 상황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상황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 3 간결하고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효과적이다.
- 4 **논술형**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10점)
속담으로 풍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음(표현의 풍부성)을 서술함.	5점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음(기술의 간결성)을 서술함.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 | 문학 작품의 관점

## 01 엄마 걱정

확인 문제 | p.24

- 1 화자      2 (1) × (2) ○ (3) ○      3 회상  
4 내 유년의 윗목      5 (1) ○ (2) ○ (3) ×      6 ㉮  
7 엄마

- 6 1연에서 화자는 시장에 간 엄마를 홀로 기다리며 외로움, 쓸쓸함, 무서움 등을 느끼고 있으며, 2연에서 어른이 된 화자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 소단원 가출 예상 문제

p.25

- 01 ㉮      02 ㉮      03 ㉮      04 ㉮      05 ㉮  
06 ㉮      07 화자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무섭고 외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차가운 이미지를 지닌 '윗목'에 빗대어 표현했다.

- 01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 '나'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억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02 화자는 시장에 간 엄마를 혼자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어른이 된 현재의 화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인지는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 03 이 시는 '찬밥', '금 간 창틈', '고요한 빗소리', '빈방', '윗목' 등의 시어나 시구를 통해 어둡고 우울하면서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04 이 시의 화자는 1연과 마찬가지로 2연에서도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느끼는 슬픔일 뿐, 현재도 같은 처지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05 '찬밥처럼'과 '배춧잎 같은'은 연결어 '~처럼, ~ 같은'을 활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에는 자연물인 플라타너스를 인격화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6 '고요한 빗소리'에는 소리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역시 '방법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후각적 심상, ②는 시각적 심상, ④는 촉각적 심상, ⑤는 미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07 혼자 빈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쓸쓸한 기억을 윗목의 차가움과 연결 짓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윗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을 제시함.	2점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동백꽃

확인 문제 | p.26~27

- 1 서술자      2 (1) 1인칭 주인공 시점 (2) 1인칭 관찰자 시점 (3) 3인칭 전지적 시점      3 봄      4 역순행적      5 감자      6 고추장  
7 (1) × (2) ○ (3) ○      8 1인칭 주인공 시점  
9 순박하고, 적극적      10 마름, 소작농  
11 (1) ㉮ (2) ㉮ (3) ㉮      12 분위기



### 소단원 가출 예상 문제

p.28~30

- 01 ㉮      02 ㉮      03 ㉮      04 ㉮  
05 '나'가 눈치가 없고 어수룩하여 자신을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01 이 글은 이야기 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1인칭 관찰자 시점, ③, ④는 3인칭 관찰자 시점, ⑤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02 '나'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점순이와 대조적이다.
- 03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건넬 때,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한 말을 듣고 점순이가 생색낸다고 오해해 마음이 상했다.
- 04 ㉮는 점순이가 '나'에 대해 걱정하며 건넨 말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건넨 말이다.
- 05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주었지만, '나'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거절하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났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점순이가 화가 난 까닭을 서술함.	2점
'나'의 특징과 관련지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이 글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뿐,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 07**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 '나'의 답을 괴롭혔다.
- 08** '나'는 무뚝뚝하고 순박한 인물로 점순이의 행동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점순이는 '나'에 대한 분노를 '나'의 답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당돌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09**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화풀이로, '나'는 자신의 답이 당한 것을 되갚아 주기 위해서 답싸움을 붙였다.
- 10**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이 들려주는 주관적인 이야기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서술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11** 답싸움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점순이의 의도된 행동이며,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미움의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12** ㉠의 말에는 점순이가 '나'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 13** (가)~(다)에서 인물에 대한 묘사와 행동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한편, 결말인 (라)에서 동백꽃은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14**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장면인 (라)에서 나오는 소재로,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나'와 점순이의 관계와 관련지어 제목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가출 예상 문제

p.31~32

-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나'가 '당신'을 기다리며 겪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      **06** ④      **07** ②
- 08** 청각 장애인인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불빛으로 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밤이 낮보다 안전하다.
- 01** 이 시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임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경이체, 수미상관의 구조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② 이 시에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02** 3연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당신'이지만, '나'는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고 말하며 '당신'에 대한 끝없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 03** 이 시의 '나'는 '당신'에게 헌신적, 희생적 태도를 보일 정도로 '당신'을 가깝게 느낀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이와 반대로 '나'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4** [A]는 'A는 B이다.'의 방법으로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는데, ⑤ 또한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과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직유법, ②는 설의법, ③은 반어법, ④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5** '바람'과 '눈비'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나룻배'가 견뎌야 하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시련', '고통'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제시함.	2점
<조건>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이 만화의 주인공은 청각 장애인이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

- 07** 이 만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이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닌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청각 장애인인 주인공은 낮에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차를 피하기가 어렵지만, 밤에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차를 피할 수 있어 밤이 낮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3점
주인공의 처지를 고려하여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대단원 가출 예상 문제

p.33~36

- 01** ④      **02** ④      **03** ⑤      **04**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무섭고 외로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5** ④      **06** ⑤
- 07** ②      **08** 이 글은 '나'가 바라본 점순이에 대해서만 서술되므로 '나'가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 추측하며 읽어야 한다.      **09** ⑤      **10** ②      **11** 앞으로 나의 관심과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12** ③      **13** ⑤      **14** ③
- 15** 당신은 훗날로 나를 잊겠습니다. / 당신은 물론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16** ④

- 01** (나)의 화자는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해 친근감을 형성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02** ㉠은 농부가 아닌 딸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딸기를 보면서 하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03 (가)에서는 ‘해는 시든 지 오래’를 통해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보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04 (가)에서는 ‘안 오시네’, ‘안 들리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화자가 느끼는 무서움, 외로움, 쓸쓸함의 심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한 까닭을 서술함.	2점
화자의 심리와 관련지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가)는 오늘 닭싸움이 벌어진 일, (나)~(라)는 갈등의 원인이 된 나흘 전 감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는 다시 닭싸움이 일어난 현재 시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현재 - 과거 - 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06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눈치가 없고 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7 ㉠을 통해 ‘나’와 점순이는 평소에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는 등 데면데면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지만, 원수 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당시 남녀가 내외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08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시각에서만 사건이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추측하며 읽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점순이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서술함.	2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과 관련지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9 이 글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나’와 점순이의 관계가 소작농의 아들과 마름집 딸의 관계이긴 하지만, 주제를 고려할 때 농촌 계급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화가 나서 ‘나’의 집 씨앗밭을 때리거나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힌 것이다.

11 점순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괴롭혀 왔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점순이는 ‘나’에게 앞으로 자신의 호의와 애정을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로 ㉠과 같이 말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의 의미를 점순이의 입장에서 서술함.	4점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12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장면의 배경과 관련한 소재이다. ‘나’와 점순이는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갈등이 해소되었다.

13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건네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나’의 닭을 괴롭힌다. 따라서 ‘나’가 아닌 점순이가 애정과 미움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 (가)에는 ‘안 오시네’, ‘안 들리네’와 같이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은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와 같이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

15 ‘당신’은 흙밭로 나룻배를 짓밟고, 나룻배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는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 <보기>에서 점순이가 자신의 닭을 때리는 것을 알고 놀란 감돌이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해학성이 드러나게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37~38

<b>01</b> 화자 현재 함 등 <b>10</b> 빗소리 <b>13</b> 서술자, 시점 <b>15</b> 감자, 닭싸움, 동백꽃 <b>17</b> 과거, 역순행적 <b>20</b> 외적 <b>25</b> 순박한/순진한/순수한 <b>28</b> (1) × (2) ○ (3) ○	<b>02</b> (1) × (2) ○ (3) ○ <b>04</b> 어린, 유년 시절 <b>06</b> 부정적 <b>07</b> 열무 <b>11</b> 윗목 <b>12</b> (1) ㉠ (2) ㉡ (3) ㉢ (4) ㉣ (5) ㉤ <b>14</b> (1) 주인공 (2) 관찰 (3) 객관적 (4) 심리 <b>16</b> 생각/심리, 주관적 <b>18</b> (1) × (2) ○ (3) ○ (4) ○ <b>21</b> 감자 <b>22</b> 닭싸움 <b>23</b> 잘난 <b>26</b> 비속어 <b>29</b> 사랑	<b>03</b> • 1연: 빈방, 밤, 엄마 • 2연: <b>05</b> 외로움, 슬픔, 무서움, 쓸쓸 <b>08</b> 직유법 <b>09</b> 엄마 <b>19</b> (1) ㉠ (2) ㉢ <b>24</b> 호드기 <b>27</b> 사투리 <b>30</b> (1) ○ (2) ○ (3) × (4) ×
---	--	--

## 2 | 독서와 발표

### 01 읽기의 생활화

■ 확인 문제 | p.39

- |  |                  |
|--|------------------|
| <b>1</b> (1) ○ (2) × (3) ○<br><b>3</b> 읽기 경험 <b>4</b> 보약, 가치 <b>5</b> 긍정적 <b>6</b> 정신세계<br><b>7</b> 가치, 진정한 인간 | <b>2</b> 능동적/적극적 |
|--|------------------|



##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

p.40~42

01 ①

02 ④

03 ①

04 ①

05 고전 소설의 문체와 내용이 평소 즐겨 읽던 무협지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④

08 ②

09 ①

10 책은 재미

를 줄 뿐만 아니라 읽을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고, 책을 읽으면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1 ③

12 ③

13 ⑤

14 ㉠ 독자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

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 ㉡ 책임감을 갖고 개를 길러야 한다 15 ③

0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생각과 느낌 등을 일정한 형식에 엮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수필이다.

02 글쓴이는 남들이 손을 거의 대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를 우연히 집어 들었고, 그것이 박지원의 소설이었다. 고전 소설이 무협지와 비슷하다고 여기게 된 것은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후이다.

03 (나)의 선생님의 말에 나타나듯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이 도서관 활동의 전부였다.

04 글쓴이는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이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를 사용한 점, 인물의 영웅적 활약상을 다룬 점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05 평소 즐겨 읽은 무협지의 문체와 <허생전>의 예스러운 문체가 비슷하고, 내용 면에서도 비슷해서 글쓴이는 고전을 어렵지 않게 읽게 되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평소 즐겨 읽던 무협지와 문체, 내용(구성 방식)이 비슷함을 제시함.	각 1점
<조간>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시, ②는 설명문, ④는 논설문, ⑤는 소설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07 고전 소설을 읽음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해 조상들의 숨결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간접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08 ㉠은 글쓴이가 지금 소설을 쓰는 일을 하는 것이 중학교 때 읽은 박지원 소설 한 권이 준 영향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09 ㉡은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드높은 가치,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10 '맛있는 책'이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 책의 재미 및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일생의 보약'은 책이 읽는 이를 정신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의미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맛있는 책'의 의미와 '일생의 보약'의 의미를 포함하여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1 (가)~(다)에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만 제시되어 있고 문제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에서 녹차의 이뇨 작용이나 카페인 성분의 특징을 바탕으로 녹차 마실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12 (바)에 나타나듯이 개는 자신을 버린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13 읽기를 통해 사람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읽기의 가치는 아니다.

14 (가)~(다)는 독자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라)~(바)는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현실을 비판하며 개 기르기에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글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 ㉡를 각각 바르게 제시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5 빨리 읽는 것을 목표로 한 독서는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글의 참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02 발표하기

■ 확인 문제 | p.43 ■

- 1 발표      2 주제, 발표 자료      3 (1) × (2) ○ (3) ○  
 4 문화재      5 문화재 환수      6 자료  
 7 차례 제시하기      8 비언어적



##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

p.44~46

01 ㉠ → ㉡ → ㉢ → ㉣ → ㉤ → ㉥

02 ④

03 ③

04 ①

05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청중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06 ③

07 ④

08 ①

09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

01 발표는 '㉠ 발표 주제 정하기 → ㉡ 발표 내용 마련하기 → ㉢ 발표 내용 조직하기 → ㉣ 발표문, 발표 자료 만들기 → ㉤ 발표하기 → ㉥ 평가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02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등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 표정 등을 말한다.

03 몸동작과 표정을 자연스럽게 적절히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양하게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04 (가)는 발표의 도입 부분으로, 차례를 화면에 제시하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발표를 집중해 들을 수 있다.

05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지도로 제시하면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 한눈에 들어온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제시함.	2점
문화재 반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핵심 내용을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07 문화재 환수 방법 네 가지를 나열하였을 뿐,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 순으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08 문화재 환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서 문화재 사진을 보여 주면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고, 환수한 문화재가 어떤 것인지 보여 주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09 발표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제시된 내용이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힘.	3점
발표 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0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질문하면 발표 진행에 방해되므로, 발표가 끝나거나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야 한다.

11 (가)에서 제시한 [화면 10]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 현황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도표(그래프)이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환수된 문화재 수가 대폭 늘었음을 한눈에 보여 준다.

12 해외에서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하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연구되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 현지 활용'의 예이다.

13 발표자는 앞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ㄷ). '힘찬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ㄱ), '고개 숙여 인사하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ㄴ).

14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내용을 씀.	2점
청유형의 한 문장으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기술 예상 문제

p.47~48

01 ③ 02 ⑤ 03 ⑤ 04 이 글의 '훈장'은 같은 글을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중시하지만, <보기>의 '그'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을 중시한다. 05 ④ 06 ② 07 ① 08 ①

09 대화하기 전에는 자신의 머리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우울해했으나, 머리가 나빠도 꾸준히 노력하여 꿈을 이룬 훈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01 (나)에서 훈장은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답하였다.

02 이 글은 훈장과 학동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03 훈장이 옛글을 즐겨 읽었다는 것은 드러나 있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글을 읽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훈장은 좋은 글은 만 번 이상 읽는 독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5점)
훈장과 <보기>의 '그'의 읽기 태도를 각각 씀.	각 2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나)에서 훈장은 어린 시절 머리가 나빠서 글을 배워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 공부를 따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였다.

06 ㉠은 아들이 비록 배움의 속도는 느리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대견하게 여기며 한 말이므로, '대기만성(大器晩成,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의 의미인 ㉡가 적절하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③은 소탐대실(小貪大失), ④는 일석이조(一石二鳥), 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이다.

07 훈장은 머리가 나쁘다고 슬퍼하는 학동에게 매일 읽는 글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외우던 시도 기억하지 못한 일화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은 더 머리가 멍석하지 못했음을 말하며 학동을 위로해 주었다.

08 훈장은 자신의 읽기 경험과 관련된 일화를 들려줌으로써 재주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09 (가)에서 머리가 나빠 책 내용이 이해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는다면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훈장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대화하기 전과 후의 심리 변화를 바르게 씀.	2점
심리 변화의 까닭을 바르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대단원 가출 예상 문제

p.49~52

-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게 함. •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06 ⑤      07 ④      08 ④  
 09 ㄱ: 환수 ㄴ: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하기 ㄷ: 현지 활용      10 ①      11 ⑤      12 ①  
 13 ①      14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재미와 뿌듯함      15 ①  
 16 ④      17 ④      18 ②      19 ③

- 01 글쓴이는 한자로 제목이 써져 있어서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은 책을 골랐다. 그것이 박지원 소설이었던 것이지 고전을 좋아해서 일부터 선택한 것은 아니다.  
 02 이 글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글쓴이는 독서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03 무협지와 <허생전>의 공통점으로 뒤에 이어 제시한 것은 <허생전>의 내용이다. 따라서 ㉠에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04 '책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은 책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는 의미이다.  
 05 (라)에 무협지를 읽을 때와 달리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4점)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을 때 느낀 점을 각각 바르게 제시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나)에서 문화재청의 조사에 포함된 문화재 외에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  
 07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08 (나)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개별 문화재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다.  
 09 문제 대응 방안으로 크게 문화재 환수와 문화재 현지 활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환수의 구체적 방법을 네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10 (라)는 문화재 환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례로 제시한 환수된 문화재의 사진을 제시하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1 ㉠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첫 번째 방법임을 드러내어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지, 조용히 해 달라는 행동은 아니다.  
 12 (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문제 제기, (나)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다)에서는 우리 문

화재의 반출 유형, (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표어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라)의 "읽을 때마다 그 글이 풍기는 고상한 기운을 새롭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마)의 '(고전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리나라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4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 성장을 의미하고, 재미와 뿌듯함을 준다는 내용은 ㉠에 나타나 있다.  
 15 ㉠은 같은 글을 많이 반복해서 읽어 유명한 시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는 박지원의 소설 한 권을 읽은 경험 덕분에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16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택하여 읽는 태도는 읽기의 생활화에 도움이 된다.  
 17 같은 책을 읽고 모둠별 이야기거리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야기거리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가)는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개를 기를 때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글이다.

### Clinic 오답 강의

- ③ (다)는 문화재의 반출 유형을 밝힌다.  
 ④ (라)는 발표를 마무리하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다.  
 ⑤ 발표할 때에는 청중에게 전달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19 <보기>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발표할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 대단원 마무리 체크

p.53~54

- 01 수필      02 (1) × (2) ○ (3) ○ (4) × (5) ○  
 03 산악반, 박지원, 가치      04 도서관      05 한자, 박지원  
 06 문체, 내용, 단맛, 주인공, 아름다움      07 건강, 정신세계  
 08 소설가      09 정신문화, 인간다운      10 배경지식, 재미, 가치관, 도서관, 독후 활동      11 ㉠ → ㉡ → ㉢ → ㉣ → ㉤ → ㉥  
 12 관심, 현황, 유형, 대응 방안, 환수, 당부  
 13 (1) 준언어적 (2) 비언어적 (3) 공식적인      14 주제, 선정      15 핵심 정보  
 16 내용, 출처      17 참여      18 자료  
 19 (1) 주제 (2) 자료 (3) 비언어적 표현 (4) 청중  
 20 (1) ㉠ (2) ㉡ (3) ㉢ (4) ㉣ (5) ㉤      21 (1) ㉠, ㉡, ㉢ (2) ㉣, ㉤, ㉥

### 3 | 담화와 의사소통

####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확인 문제 | p.55

- 1 담화      2 화자, 청자, 내용, 맥락      3 통일성      4 응집성  
5 (1) 상황 맥락 (2) 사회·문화적 맥락      6 (1) × (2) ○ (3) ×



#### 소단원 가출 예상 문제

p.56~58

-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②  
06 ③      07 ⑤      08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담화가 이루어진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09 ⑤      10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 음식 맛이 어떤가요?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①, ④

- 01 담화의 의미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담화를 해석할 때에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02 발화란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발화가 연속된 것이 담화이다. 의미를 가진 각각의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담화가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 03 유나가 한 말의 주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이다.
- 04 '그러므로'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표현이다. 그러나 ㉠에서는 뒤 문장의 내용을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그러나'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5 이 글은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통일성을 해친다.
- 06 ㉠은 ㉡에서 말한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장을 시작할 때 '우선, 먼저, 첫째' 등의 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는 앞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내용을 이끌거나 앞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표현이므로 ㉠에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7 담화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와 같이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 Clinic 오답 강의

ㄱ, ㄴ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다.

- 08 <보기>의 담화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상황 맥락과 관련지어 까닭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가)의 상황에서 "어떠세요?"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를 묻는 발화이고, (나)의 상황에서 "어떠세요?"는 치료 부위가 아픈지를 묻는 발화이다. ⑤는 치료한 부위가 아픈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 10 음식을 먼저 먹어 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 "어떠세요?"는 음식의 맛이 만족스러운지, 음식의 맛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채점 기준 (채점 요소)	배점(총3점)
제시된 상황에서 "어떠세요?"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함.	3점
의문문으로 쓰지 않음.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1 ㉠은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을 꾸짖는 말이다. 따라서 ㉠에 대해 학생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등과 같이 지각한 것을 반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보기>의 상황에서 쓰인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 게임을 멈추고 잠을 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 13 이 담화는 우리나라의 명절 풍습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문화를 고려해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④는 제시된 담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14 여학생의 할아버지가 명절마다 임진각에 간다는 말을 통해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친구의 할아버지가 북쪽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임진각을 찾는다는 것을 짐작하고 ㉡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⑤ 임진각은 실향민들이 합동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 이곳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5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화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만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 16 우리나라에는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때 예의상 한 두 번 거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손님은 그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과 같이 말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나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줄리엣은 ㉠의 표면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차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 02 소통과 공감

확인 문제 | p.59

- 1 의미 공유 2 (1) × (2) ○ (3) ○ 3 경청  
4 (1) ㉠, ㉡ (2) ㉢, ㉣



### 소단원 가출 예상 문제

p.60~62

- 01 ④ 02 ⑤ 03 ④ 04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05 ⑤ 06 ④ 07 ③  
08 ⑤ 09 은미는 자신이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과 친구와 화해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 10 ② 11 ⑤ 12 ②  
13 ② 14 학급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더구나 티셔츠 디자인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친구들이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하니까 많이 답답하겠다.

- 01 (나)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가)에서 한 사람은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은 음악 수행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3 (나)에서 아빠와 민호는 평소 대화로 통해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04 "그야 민호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잘 알지.", "평소에 표현을 안 하셔서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라고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민호가 아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민호가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알게 된 내용을 제시함.	2점
(조간)의 문장 형태대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가)에서 공감하며 대화할 때의 핵심은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06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껴지면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07 (나)에서 광수는 은미에게 먼저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은미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은미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08 (나)에서 광수가 은미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정도로 반응을 보였다면, (다)에서 찬우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등 광수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09 "생각해 보니 나도 그때 잘못된 것이 있어서 화해하고 싶어. 네가 잘 들어 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라는 은미의 말을 통해 은미가 찬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은미가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을 두 가지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0 대화할 때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과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11 광희는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일과 관련된 내용을 예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⑤의 설명은 알맞지 않다.  
12 <보기>에서는 조카의 지식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조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 효진이는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면서 준호의 말을 듣고 있다. 이는 공감하며 듣는 방법 가운데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14 대화에서 준호의 두 번째, 세 번째 말의 의미와, 준호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여 효진이의 말로 재구성하도록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3점
준호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더 읽어 보기 가출 예상 문제

p.63~64

-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① 07 ③ 08 ④ 09 ⑤ 10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듣게 되므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01 이 글은 처음, 중간, 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가 처음, (나)~(바)가 중간, (사)가 끝에 해당한다.  
02 (나)~(바)에서는 효과적인 듣기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는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 중심 내용이므로 소재목으로 '시선 맞추기'가 적절하다.

#### ✚ Clinic 오답 강의

(나)의 소재목은 '정신 집중하기', (라)의 소재목은 '적절한 질문 던지기', (마)의 소재목은 '적절한 맞장구 치기', (바)의 소재목은 '공유한 내용 확인하기'가 적절하다.

- 03 이 글에서 글쓴이는 진실을 바탕에 둔 공감의 대화,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진정한 대화를 좋은 대화라고 여기고 있다.
- 04 글쓴이는 (가)에서 제시한 대화 유형 가운데 이상적인 것은 진실을 바탕에 김 공감의 대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열심히 들어 주는 석영이다.
- 05 ㉠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대화이고, ㉡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화이므로 공감하며 듣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공감하며 들을 때 가능한 대화는 ㉢이다.
- 06 (다)에서 '시선 맞추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무엇인가 경청해 보겠다는 무언의 의사 표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7 남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까닭은 상대방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 08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긍정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말을 맞장구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9 '여기서는 이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듣기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라는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글 전체에서 다룰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 10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공감을 얻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듣기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의 의미를 씀.	2점
<조건>에 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대단원 가출 예상 문제

p.65~68

- 01 ④      02 ③      03 (나), 각 발화들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하나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04 이/이러한    05 ①      06 ⑤      07 ④      08 ⑤
- 09 ③      10 ⑤      11 ㉠ 고마워요. 한잔 주겠어요? ㉡ 차 드시면서 쉬었다 가세요.      12 ②      13 ⑤
- 14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였기 때문이다.
- 15 ①      16 ⑤      17 ④      18 ④
- 19 친구와 다툼 일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좋지 않다.      20 ④
- 21 ④

- 01 만화에서 발화는 동생이 한 말과 누나가 한 말이다. 즉, 발화는 동생과 누나의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들의 연속체인 대화 전체가 담화이다.
- 02 담화의 통일성이란 발화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심 내용(주제)과 관련 없는 발화들을 나열하면 담화의 통일성을 해치게 된다.
- 03 (가)는 각각의 발화가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와 달리, (나)는 각각의 발화들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의미가 잘 전달되는 담화를 골라 적음.	1점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이/이러한' 등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을 간결하고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좋다.
- 05 ㉠: 뒤 문장의 내용을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으므로 '그런데'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앞에 있는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킁킁거리'는이라는 표현을 가리키는 '그러다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역접 관계로 이어지므로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앞에 있는 '방귀를 똥 것은 제가 아니라고'라는 표현을 가리키는 '그렇게'를 쓰는 것이 좋다.
- 06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들(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과 함께 상황 맥락에 포함된다.
- 07 (가)의 "어떠세요?"는 미용사가 머리 모양을 손님의 마음에 들도록 손질해 주려는 의도와 목적에서 사용된 발화이고, (나)의 "어떠세요?"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주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사용된 발화이다. 따라서 (가), (나)의 발화에 담긴 의도나 목적은 다르다.

- 08 "내려요."는 ㉢의 상황에서 승객이 내려야 하니까 문을 열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뜻이다.  
 ② 함께 내리자는 뜻이다.  
 ③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는 뜻이다.  
 ④ 문을 열어 달라는 뜻이다.

- 09 ㉠은 선생님이 9시 30분에 등교한 학생에게 지각한 것을 꾸짖는 의도로 한 말이다.



**10** 줄리엣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손님은 줄리엣이 마실 것을 한 번 더 권하지 않아서 서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괜찮아요.”라는 손님의 말은 차를 마시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를 예의상 한 번 사양한 것이며, 외국인인 줄리엣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1** 손님은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줄리엣이 차를 권할 때 예의상 사양하지 않고 차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 줄리엣은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님에게 한 번 더 차를 권하는 것이 좋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줄리엣을 배려하여 ㉠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씀.	2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을 바꾸어 씀.	2점

**12** (나)에서 아빠가 말할 때에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였다가 민호가 말할 때에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가 된다. 이처럼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뀔 수 있다.

**13**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과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가)에서 한 사람은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은 음악 수행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15**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빠가 민호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과 같은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16**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화자의 말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며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7** (가), (나)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예이다.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광수와 찬우 모두 은미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다만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으로, 찬우는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으로 듣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9** 은미는 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일이 계속 신경 쓰여 마음이 답답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조간〉에 맞게 은미의 고민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0** (가)에서 광수는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이라고 반응하며 은미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21** (나)에서 찬우는 〈보기〉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의미를 재구성하여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게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④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들려준 것이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 대단원 마무리 체크 p.69~70

- 01** 답화 **02** (1) 화자 (2) 청자 (3) 내용 (4) 맥락  
**03** (1) ○ (2) × (3) ○ **04** 통일성 **05** 응집성 **06** 상황 맥락  
**07** 사회·문화적 맥락 **08** 주제 **09** 하지만, 이/이러한  
**10** 관계, 목적 **11** (가) 머리 모양, 머리 모양 (나) 치료 부위  
**12** 예의, 차 한잔 하시면서 쉬었다 가세요. **13** (1) ○ (2) ○ (3) ○  
**14** (1) 목적, 청자 (2) 집중, 반응 **15** 생각, 관계 **16** (1) ○ (2) × (3) ×  
**17** (1) 적 (2) 적 (3) 소 (4) 소 **18** (1) ○ (2) × **19** (1) ㉠, ㉡ (2) ㉢  
**20** ㉠, ㉢, ㉣, ㉤, ㉥

## 4 |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 01 먼 후일

확인 문제 | p.71

- 1** 반복 **2** 리듬감, 강조 **3** (1) 같은 소리  
**(2)** 같은 시구 **(3)** 같은 문장 구조 **4** 반어 **5** 가정  
**6** ‘있었노라’ **7** 같은 시어 **8** 3

## 소단원 가출 예상 문제 p.72

- 01** ⑤ **02** ④ **03** ③ **04** ⑤ **05** ⑤  
**06** ⑤

**01** ⑤는 비유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는 비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02** 4연에서는 오늘도 어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먼 훗날 그때에도 잊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03 이 시의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이 화자를 찾거나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04 이 시는 ‘~면 ~노라’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도 ‘보니 ~ 좋아’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ㄹ’ 소리의 반복, ②는 의태어 사용, ③은 4음보 반복, ④는 7·5 글자 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5 오늘도 어제와 잊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그리워 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당신’을 잊을 수 없기에 먼 훗날 그때 만날 때에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06 이 시는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와 함께 임을 잊지 않았다는 다짐도 나타난다. ⑤에도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 나타난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체념과 달관의 태도, ②는 의지적 태도, ③은 체념적 태도, ④는 달관의 태도가 나타난다.

## 01 독은 아름답다

확인 문제 | p.73

- 1 역설      2 반대, 모순      3 진실      4 부정, 긍정  
5 (1)○ (2)× (3)○      6 부모의 사랑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

p.74

-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⑤

- 01 이 시의 화자는 흔히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는 대상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02 각 연의 2행에 겹보기에 모순된 표현(역설)이 나타난다.
- 03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는 새나 곤충으로부터 열매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의해 주세요’라는 말은 ‘은행나무 열매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행나무 열매가 다치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04 일반적으로 찌르는 행위는 부정적인 행위이지만, 이 시에서는 밤송이의 날카로운 가시가 밤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는 밤톨을 보호하려는 특성에 주목한 것일 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05 이 시에는 ‘구린내가 향기롭다’ 등과 같이 각 연의 2행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②에는 임이 떠나면 몹시 슬플 것이라는 속마음과 반대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고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06 4연에서 자식을 위해 독하게 술을 끊은 것은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사랑일 뿐, 바르게 이끌어 주는 가르침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 02 양반전

확인 문제 | p.75~76

- 1 풍자      2 (1)× (2)○ (3)○      3 비판/풍자  
4 양반 신분      5 (1) 양반의 아내 (2) 부자 (3) 양반 (4) 군수      6 ③  
7 평민 계층, 신분 제도      8 (1)× (2)× (3)○ (4)○  
9 규범/의무, 특권/권리      10 양반      11 무능  
12 허례허식, 부도덕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

p.77~79

-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빛을 갹기 위해 양반의 신분을 팔아서 더 이상 양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⑤      08 ②      0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 01 부자가 평소에 양반들에게 갹은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정선군에 사는 양반이 부자에게 횡포를 부린 것은 아니다.
- 02 이 글은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나 부를 축적한 평민이 등장하여 신분 제도가 동요하기 시작하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쓰였다. 그러나 ③을 통해서 이러한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알 수는 없다.
- 03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환자를 갹지 못하는 형편임을 딱하게 여겨 옥에 가두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군수는 양반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양반이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 먹었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의 환자는 ‘환곡.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서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갹두던 일. 또는 그 곡식.’을 의미한다.
- 05 양반은 부자가 빛을 대신 갹아 주는 조건으로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군수 앞에서 평민처럼 자신을 낮추어 행동하였다.
- | 채점 요소                      | 배점(총 3점) |
|----------------------------|----------|
| 양반이 자신을 낮춘 이유를 제시함.        | 3점       |
|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 -1점      |
- 06 (나)의 ‘끓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단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에서 가난을 참고 말하지 않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07 풍자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 글에서 풍자를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상황을 우스꽻스럽게 표현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08 (나)는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매매 증서로, 양반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양반들의 모습은 부자가 바라던 '신선'과 같은 모습과 거리가 멀어 (다)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 09 (라)의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이 증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한다. 이를 통해 양반 계층의 부도덕하고 부패한 모습을 풍자하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
- 10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동요되던 시대상을 바탕으로 하여, 신흥 부유층인 '부자'를 통해 당시 양반 계층의 횡포와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하였다.
- 11 ㉠에서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이 비천해서 양반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분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차이 났음을 알 수 있다.
- 12 두 작품에서 양반은 모두 글만 읽고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인물을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아내들의 말을 통해 이런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3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의 횡포에 환멸을 느낀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양반에 대한 풍자가 절정에 달한다.

### 03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 쓰기

■ 확인 문제 | p.80

- 1 관공구, 인상적      2 경험      3 그리움, 고마움  
4 명언      5 (1) 관공구 (2) 참신한 표현 (3) 속담 (4) 명언  
6 '참 외롭다.'



#### 소단원 가출 예상 문제

p.81~82

- 01 ②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②      07 ⑤      08 (1)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 (2)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잖아.

- 01 이 글은 편지글로, 편지글은 글을 읽는 독자가 정해져 있다.
- 02 (나)에서 슬기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고, 슬기가 새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보아, 슬기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3 '나'는 속담과 참신한 표현을 활용하여 슬기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04 ㉠은 '참 외롭다.'의 각 어절에서 한 글자씩 조합하여 '참외'라고 참신하게 표현한 것이다. ㉡도 '무지 개구쟁이거든.'에서 첫 번째 어절의 '무지'와 두 번째 어절의 앞 글자 '개'를 조합하여 '무지개'라고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 05 '비행기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추어올려 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라고 표현하면 자신이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기를 칭찬하는 말임을 강조할 수 있다.
- 06 ㉠은 반 대항 축구 경기 때 슬기가 없어 허전했음을 '김빠진 탄산음료'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속담은 활용되지 않았다.
- 07 ㉠은 프랑스의 서간문 작가인 세비네의 말로, 직접 대면하여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을 표현한 명언이다.
- 08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는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발 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 ✚ Clinic 오답 강의

눈이 높다: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 더 읽어 보기 가출 예상 문제

p.83~84

- 01 ⑤      0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03 ⑤      04 ②      05 ②      06 ②, ④      07 ⑤  
08 ①      09 ④      10 병뚜껑을 많이 기부하면 이웃에게 밥 한 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

- 01 속담은 불특정 다수의 언중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함께 만들어 온 말이다.
- 02 '무는 개를 돌아본다'는 너무 순하기만 하면 도리어 무시당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자기가 요구하여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과 ㉡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을 알 수 있다.

#### 채점 요소

①과 ②의 공통점을 서술함.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 배점(총 3점)

3점

-1점

- 03 문맥상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 바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속담인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니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뜻.
- ②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심술을 부려 남도 갖지 못하도록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고약한 마음을 이르는 말.
- ③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

- 04** 속담을 활용하면 그 속담을 알고 있는 세대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 05** ②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이익을 보게 됨을 뜻한다.
- 06** ①이 설명에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그렇지만 ①을 활용함으로써 34년이 긴 세월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 07** ①은 '꿇 대신 닭'이라는 원래의 속담에서 단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만든 새로운 표현으로, '꿇'과 '닭'이 비유하는 의미는 그대로 두고 단어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더 알맞은 것으로 대신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 08**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표제는 제한된 공간에 글자를 배치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속담을 활용하여 기사 내용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9** (다)에 제시된 예는 모두 속담과 간결한 추가 정보로 이루어진 표제를 제시하여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10** '티끌 모아 태산'은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뜻이다. 제목의 구조로 보아 '티끌'은 '병뚜껑', '태산'은 '밥 한 끼'에 대응되므로, ㉠는 병뚜껑을 많이 기부하면 밥 한 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속담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적절하게 씀. (병뚜껑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면 정답 처리)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가출 예상 문제

p.85~89

- 01** ③      **02** ①      **03** ⑤      **04** ⑤      **05** 술을 끊은 친구의 독한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다.
- 06** ①      **07** ②      **08** ③      **09** ②
- 10** ②      **11** ①      **12** ③      **13** ⑤      **14** ④
- 15** ②      **16**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 **17** ⑤
- 18** ④      **19** ①      **20** ①      **21** ⑤      **22** ⑤
- 23**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 01** (가)는 반어를 사용하여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나)는 역설을 사용하여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

- 02**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먼 훗날 입과 다시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며 입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03** 도치법은 문장 안에서 낱말이나 구절의 순서를 뒤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두 시에 도치법은 쓰이지 않았다.

- 04** ①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입과 이별한 후 현재까지도 입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을 그리워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술을 끊는 것은 평소 술을 마시던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해낸 행동이지만, 이는 소중한 자식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에 담긴 역설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나)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①에서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고 표현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 ②는 직유법, ④는 설의법, ⑤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③ 그대를 생각하는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07** 이 글은 풍자의 표현을 활용하여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이 소설에는 전기적(傳奇的)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조선 후기의 사회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 사건의 흐름까지 모두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소설이다.

- 08** (다)에서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반발했고, (마)에서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의 횡포에 놀라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 09** '부자'는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한 신혼 부유층이다. 평소에 신분적 불평등으로 수모를 겪으며 살아오다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자 한다. 하지만 '부자'가 백성들을 꺾박해서 재산을 축적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라)에 양반 계층이 신분을 이용하여 평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10** A: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B: 양반의 허례 허식 비판, C: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 D: 양반의 횡포와 부도덕성 비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1 (나)에는 지나치게 체면과 격식을 차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다. ①은 돈의 액수 '두 냥 반'과 '두 양반'의 음이 유사한 데서, 돈을 주고 산 양반을 비꼬는 말을 의미하므로, (나)의 양반들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나머지는 힘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체면과 위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Clinic 오답 강의**

- ② 「1」 위신을 지극히 생각한다든 말. 「2」 한문에 중독된 양반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③ 양반은 체통을 차리느라고 없는 기색을 내지 아니한다는 말.  
 ④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  
 ⑤ 아무리 위급한 때라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말.

- 12 <보기>는 선비가 관직에 나가도 권력을 이용해 권세와 이익을 쫓아내고 선비의 도리와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라)의 '문과 홍패가 이 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돈 자루다.'를 통해 양반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권세를 이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3 ㉔는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고 한가롭게 유흥을 즐기는 양반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4 이 글은 전학 간 친구에게 쓴 편지글이다. 속담, 관용구,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활용하였으나, 유행어는 활용하지 않았다.

- 15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유주와 슬기가 아침에 함께 학교에 갔음을 알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③ '네가 전학 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라는 내용을 통해 유주와 슬기가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6 글쓴이는 일화를 통해 슬기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때 '비행기 태우다'라는 관용구를 활용하여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추어올리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 17 글쓴이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자신과 슬기가 떡볶이 가게를 지나치지 않고 자주 들렀음을 표현하였다.

- 18 문맥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다.'를 의미하는 '발 벗고 나서다' 또는 '어떤 일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일할 태세를 갖추다.'를 의미하는 '팔소매를 걷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하고 있던 일에서 빠져나오다.  
 ② 「1」 일 처리가 빠르다. 「2」 파는 물건이 잘 팔려 나간다.  
 ③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  
 ⑤ 복잡거리어 혼잡스럽다.

- 19 제시글에서는 속담이 많은 사람의 반복적인 경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속담을 활용하면 상황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0 글의 맥락으로 보아 빈칸에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의미하는 속담 '우는 아이 젖 준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 ②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③ 무엇을 몸에서 지니거나 가까이 두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에서 오래도록 찾아 헤매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④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늘 싸움만 하여 상처가 미쳐 나을 사이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1 ⑤는 '닭 대신 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다. 화자는 '꿩 대신 닭'이라는 널리 쓰이는 속담을 활용하여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아쉬운 대로 비슷한 것을 준비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 22 상필이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놓고 매부 좋고'라는 유사한 뜻을 지닌 속담을 나열하였고, '떡 감고 설탕 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줌'과 같이 원래 있는 속담을 활용한 새로운 표현을 덧붙였다.

- 23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개밥에 도토리'라는 속담을 써서 간결하게 드러내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속담 활용의 효과로 간결성을 제시함.	2점
전달하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마무리 체크** p.90~91

- 01 떠난 임 02 먼 훗날 '당신'이 자신을 찾는 상황 03 그리움  
 04 임과 이별한 05 '무척 그리다가'  
 06 '믿기지 않아서' 07 이별, 임을 잊지 못하고 08 반어  
 09 (1) ○ (2) × (3) ○ (4) × 10 (1) ○ (2) ○ (3) ○ (4) × 11 부정적  
 12 (1) ㉔ (2) ㉔ (3) ㉔ (4) ㉔ 13 자식, 사랑 14 모순  
 15 • 모순, 진실 • 의미, 참신, 진실 16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선군  
 17 양반, 부자, 군수, 권리, 도둑놈, 포기 18 무능함  
 19 (1) × (2) ○ (3) × 20 체면, 허례허식  
 21 횡포, 부도덕 22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23 (1) × (2) ○ (3) ○ 24 (1) 관용구 (2) 참신한 표현 (3) 속담 (4) 참신한 표현 (5) 명언  
 25 진심 26 힘든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친구이다. / 마음이 따뜻한 친구이다. 27 편지, 대화



- 01 ⑤      02 ⑤      03 혼자 엄마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04 ⑤      05 ⑤      06 ④  
07 ①      08 ⑤      09 내 유년의 윗목      10 ②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③  
16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하자 무안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17 ④  
18 ⑤      19 ④      20 ③      21 수탉이 매운 고추장을 먹으면서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매일같이 점순네 닭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2 ④      23 ③  
24 ②      25 ‘당신은 훗날로 나를 잊겠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려.’에서와 같이 ‘당신’은 ‘나’에게 무심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인다.

- 01 이 시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느끼는 슬픔을 혼자 이야기하듯이 독백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단정적인 어조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02 이 시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과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시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3 ‘고요히 빗소리’는 빈방에 혼자 있는 화자를 더욱 외롭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소재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제시된 시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함.	2점
화자의 정서를 포함해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1연에서 화자는 시장에 나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 외롭고 쓸쓸해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는 장면은 어울리지 않는다.
- 05 이 시와 <보기> 모두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이 담겨 있지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이 시와는 달리 <보기>의 시는 밝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 06 ‘찬밥’, ‘뜨겁게’, ‘윗목’의 시어에서 촉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④의 ‘서늘런’, ‘열로 상기한 볼’에서도 촉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후각적 심상, ②는 청각적, 미각적 심상, ③은 시각적 심상, ⑤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07 (가)에는 ‘발소리 타박타박’, ‘고요히 빗소리’, ‘홀썉거리던’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지만, (나)에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 08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시장에 갔다가 지친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⑤는 화자의 대답으로 적절하다.
- 09 ‘내 유년의 윗목’은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 표현한 시구로, ‘나’에게 유년 시절은 차갑고 시린 느낌을 주는 시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0 ㉠은 ‘나’에게 무심하고 매정한 ‘당신’에 대한 ‘나’의 희생적·헌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시행이다.
- 11 (가)의 화자는 시장에 간 엄마를, (나)의 화자는 자신을 떠난 ‘당신’을, <보기>의 화자는 자신을 사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 12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의 서술과 ‘나’와 점순이의 대화를 통해 ‘나’와 점순이의 특징이 직·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13 ‘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순박한 인물인 데다가 마음과 소작농이라는 집안의 관계 때문에 평소에 점순이와 가깝게 지낼 수 없었을 것이다.
- 14 감자 사건을 계기로 ‘나’와 점순이는 갈등하게 되는데, 이는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거나 닭싸움을 붙이는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 ‘나’와 점순이의 마음이 뒤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 15 점순이는 ‘나’의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나’에게 감자를 준 행동,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나’의 닭을 괴롭힌 행동으로 보아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16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것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점순이가 ㉠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서술함.	2점
점순이의 심리가 드러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7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다. 서술자는 이야기 안의 주인공인 ‘나’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18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점순이와, 그런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나’의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19 (라)에서 ‘나’는 점순이의 물음에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그래.”라고 대답했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20 닭싸움으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심화되다가 (다)에서 ‘나’가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죽임으로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 21 ‘나’는 점순네 닭을 이기기 위한 방도로 수탉에게 고추장을 더 먹이는데, 고추장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닭을 보면서 점순네 닭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나'가 ㉠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서술함.	2점
'당장의 괴로움'의 의미를 포함해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2 (다)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들을 생동감 있고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비극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23 (나)의 화자는 무심한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낚아 가지 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
- 24 (가)의 화자가 2연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서술한 '윗목'과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여전히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나'를 흠발로 짓밟고 물을 건너고 나면 돌아보지도 않는 '당신'의 모습에서 무심하고 무정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씀.	2점
구체적인 시행을 찾아 언급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실전 모의고사 2 회

p.98~102

- 01 ②      02 ③      03 ⑤      04 ③
- 05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를 사용한 점, 인물이 조용히 실력을 쌓은 뒤 세상을 멋지게 뒤흔들어 놓은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점이 비슷하다.      06 ①      07 ②      08 ①
- 09 ④      10 •(가): 소설가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나): 유명한 시인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1 ①      12 ③
- 13 발표자가 안건의 <몽유도원도> 그림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몽유도원도>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①      15 ②
- 16 ②      17 (1): (가)에서 실제 사례로 든 문화재의 사진 자료 (2):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8 ②      19 ⑤
-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①
- 25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한다.

- 0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수필은 누구나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글쓴이의 개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02 (가)를 통해 '나'가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을 찾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3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무협지와는 다른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있다.

- 04 글쓴이는 책을 읽고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약을 먹은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5 (나)에서 글쓴이는 즐겨 읽던 무협지와 <허생전>의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이 비슷해서 <허생전>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가 비슷함을 제시함.	2점
내용 구성 방식이 비슷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가), (나)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글이므로 읽기를 생활화해야겠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 07 글쓴이는 자신의 중학교 때 고전 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08 ㉠의 앞부분에서 책은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였으므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명언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나'는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반복해서 계속 읽었다.

- 10 (가)의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중학교 때 읽은 박지원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나'는 유명한 시인이 된 것은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라고 학동들에게 대답하였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가)의 '나'가 소설가가 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힘.	2점
(나)의 '나'가 유명한 시인이 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힘.	2점

- 11 '해외가 인정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자료는 발표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발표 준비로 적절하지 않다.
- 12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지는 않다.
- 13 (나)에서 발표자는 널리 알려진 <몽유도원도> 그림을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몽유도원도>의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씀.	2점
<조건>에 따라 근거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4 ①은 발표할 순서를 안내하는 '차례'를 제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 15 <보기>는 발표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발표 흐름상 우리나라 문화재인 <몽유도원도>가 일본에 있음을 밝힌 (나)와, 발표할 차례를 안내하는 (다) 사이에 <보기>를 제시하여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이 발표에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7 (가)는 문화재 환수의 네 가지 방법을 대표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예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시하면 청중의 이해도 돕고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1)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씀.	2점
(2) 사진 자료의 제시 효과를 바르게 씀.	2점

18 ‘[화면 10]을 가리키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이 [화면 10]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ㄴ) 또한 (나)의 내용과 [화면 10] 자료를 통해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해외에서 환수된 문화재가 늘어났음을 알려 주고 있다.(ㄷ)

19 (가)는 문화재 환수 방법을, (나)는 문화재의 현지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해당한다.

20 발표할 때 중앙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향해 골고루 시선을 주어야 한다.

21 (가), (나) 모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이므로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⑤가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독서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삶의 목표가 없는 이도 독서를 통해 삶의 목표를 찾을 수도 있다.
- ③ 좋은 책 한 권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2 (가)에서 책은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 준다고 하였다.

23 (나)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원하는 바를 이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4 현지 활용은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다. 해외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하거나 우리 문화재의 연구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일을 말한다.

25 (라)는 발표의 마무리 단계로, 발표자는 앞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마무리 단계에서 할 일 두 가지를 씀.	각 1점
<조건>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②, ③  
 06 ⑤      07 ⑤      08 바지의 치수가 잘 맞으세요? / 바지 디자인이 마음에 드세요?      09 ②      10 ②      11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12 ④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②  
 19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20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한다. /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효진이는 준호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

01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02 ㄴ. 적절한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사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담화가 통일성을 갖추려면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한다.

03 (가)는 각각의 발화가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나)는 각각의 발화들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의미가 쉽게 파악된다.

04 ‘그리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표현이다. ㉠에서는 여접 관계를 나타내야 하므로 ‘하지만’, ‘그러나’ 등과 같은 접속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②는 앞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문장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과 같은 지시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③은 주제와 관계 없는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06 (나)의 상황에서 “어떠세요?”는 치료 부위가 아픈지 묻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는 “아직도 조금 아파요.”와 같이 아픈 부위가 나아졌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가)와 (나)에 사용된 “어떠세요?”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나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08 <보기>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점원이 말한 “어떠세요?”는 옷의 치수나 디자인에 대해 손님의 의견을 묻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보기>의 상황 맥락에 맞게 발화의 의미를 해석함.	2점
화자의 말투로 자연스럽게 씀.	1점

09 성우는 정재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과 같이 말했으나, 정재가 성우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단점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0** 선생님은 ㉠을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꾸짖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만, 학생은 현재 시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11** ㉠은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꾸짖는 말이므로 지각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선생님의 발화 의도를 고려하여 학생의 대답을 고쳐 씀.	2점
학생의 말투로 자연스럽게 씀.	1점

**12** 손님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줄리엣을 배려하여 말했다면, 줄리엣이 차를 권할 때 “괜찮아요.”가 아니라 “고마워요. 차를 한잔 주겠어요.” 등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줄리엣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13** 손님의 입장에서는 예의상 한번 사양한 것인데 줄리엣이 차를 더 이상 권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 추석에 시골 큰집에 가는 것은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풍습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②는 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수민이는 파블로에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16**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은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17** (가)에서는 듣기와 말하기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18** 민호는 아빠가 평소에 표현을 안 해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⑤ 아빠와 민호는 대화를 통해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19**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듣기와 말하기의 효과를 인간관계 측면에서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0**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청자는 화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자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청자가 지녀야 할 태도를 서술함. (예시 답안 중 한 가지만 쓰면 정답으로 인정)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1**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2** 광수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드러내고, 맛장구를 쳐서 은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은미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다.

**Clinic** **오답 강의**

③은 (나)에서 찬우의 듣기 태도에 해당한다.

**23** (나)의 대화를 통해 은미는 속상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 찬우는 은미의 마음을 헤아리며 듣고 있을 뿐, 은미의 말 중에서 잘못된 점을 찾으려 비판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

**25** (다)에서 효진이는 앞서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공감하며 듣기 방법 가운데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 중 요약하여 말하기임을 씀.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만 쓰면 2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실전 모의고사 4 회** p.108~112

-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③  
 06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07 ③  
 08 ③      09 ④      10 ①      11 ⑤  
 12 양반이 되어 이익을 얻으려는(특권을 누리려는) 부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3 ③      14 ⑤      15 ④      16 ③  
 17 비행기를 태우려고      18 ①      19 ②      20 ④  
 21 ①      22 ①      23 ①      24 서로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01** (가)에서는 1~3연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임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에서는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과 여기에서 발견한 긍정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각 연의 내용과 형식을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02 (가)는 3음보의 반복,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 잊었노라’와 같은 시어의 반복, ‘~면 ~노라’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화자는 ‘당신’과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면서, 먼 훗날이 되어도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당신’을 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가)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㉓는 먼 훗날 ‘당신’과 만났을 때의 화자의 대답이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05 (나)는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㉓도 ‘찬란한 슬픔의 봄을’과 같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봄에 대한 기쁨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영탄법, ②는 반어법, ④는 직유법, ⑤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06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밤송이의 가시’, ‘복어알의 독’, ‘친구의 독한 마음’은 모두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채점 요소	배점(총 3점)
시적 대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함.	3점
시적 대상의 부정적인 역할을 제시함.	0점

07 이 글은 조선 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양반의 무능과 위선을 풍자한 고전 소설이다.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 있지만 신분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08 이 글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양반’이다. 등장인물인 ‘아내’, ‘부자’의 말이나 (다), (마)의 매매 증서의 내용을 통해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양반의 생김새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군수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자가 스스로 양반 되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0 (다)의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르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나 법식’을 의미하는 ‘허례허식’과 관련 깊다. (마)의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권력을 세습하고 향락에 젖어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을 의미하는 ‘무위도식(無爲徒食)’과 관련 깊다.

**Clinic** 오답 강의

-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 수신제가(修身齊家):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11 부자는 양반이 신선과 같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매매 증서에 양반이 지켜야 할 일들만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달라 이에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12 (라)에서 ‘부자’는 양반이 됨으로써 ‘무슨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특권 의식을 지향하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라)에서 비판하는 부자의 부정적 모습을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13 ㉠은 부자의 반발로 새로 작성한 두 번째 양반 신분 매매 증서이다. 양반의 부도덕한 행위와 횡포가 나열되어 있는 두 번째 증서를 보고 부자는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은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다.

14 작가는 (다)에서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Clinic** 오답 강의

〈보기〉에서 ‘두꺼비’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양반)를,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큰 권력을 가진 중앙 관리를 상징한다.

15 ‘언제나 곁에서 나를 지켜 주던 너에게 못 했던 말을 이제야 전해. 정말 고마웠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유주가 평소 고마운 마음을 슬기에게 표현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 유주는 슬기의 블로그를 보고 슬기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슬기와 함께 했던 학교생활이 떠올라 슬기가 더 그리워졌다고 하였다.

17 슬기에 대한 칭찬이 진심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에는 ‘비행기 태우다’라는 관용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 ㉠은 프랑스의 서간문 작가인 세비네의 말로, 멀리 떨어져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언이다. 유주는 이 명언을 활용하여 슬기와 빨리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19 속담이나 관용구, 참신한 표현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생각을 참신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읽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경우에 독자에게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0 이 글은 속담을 활용한 글 쓰기에 대한 설명문이다. 다양한 예를 통해 속담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21 (가)에서 속담의 특징을 제시한 후, (나)에서는 표현의 풍부성을, (다)에서는 기술의 간결성을 들어 속담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22 ‘속담은 이미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잘 다듬어졌다.’라는 문장에서 속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정돈

되어 가지런히 되다.'라는 뜻의 '정제되다'가 활용된 형태인 '정제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3** ㉠은 문맥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한 속담을 사용함으로써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조하였으며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24**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채점 요소	배점(총 4점)
신문 기사의 핵심 내용을 씀.	2점
활용된 속담의 뜻(협력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